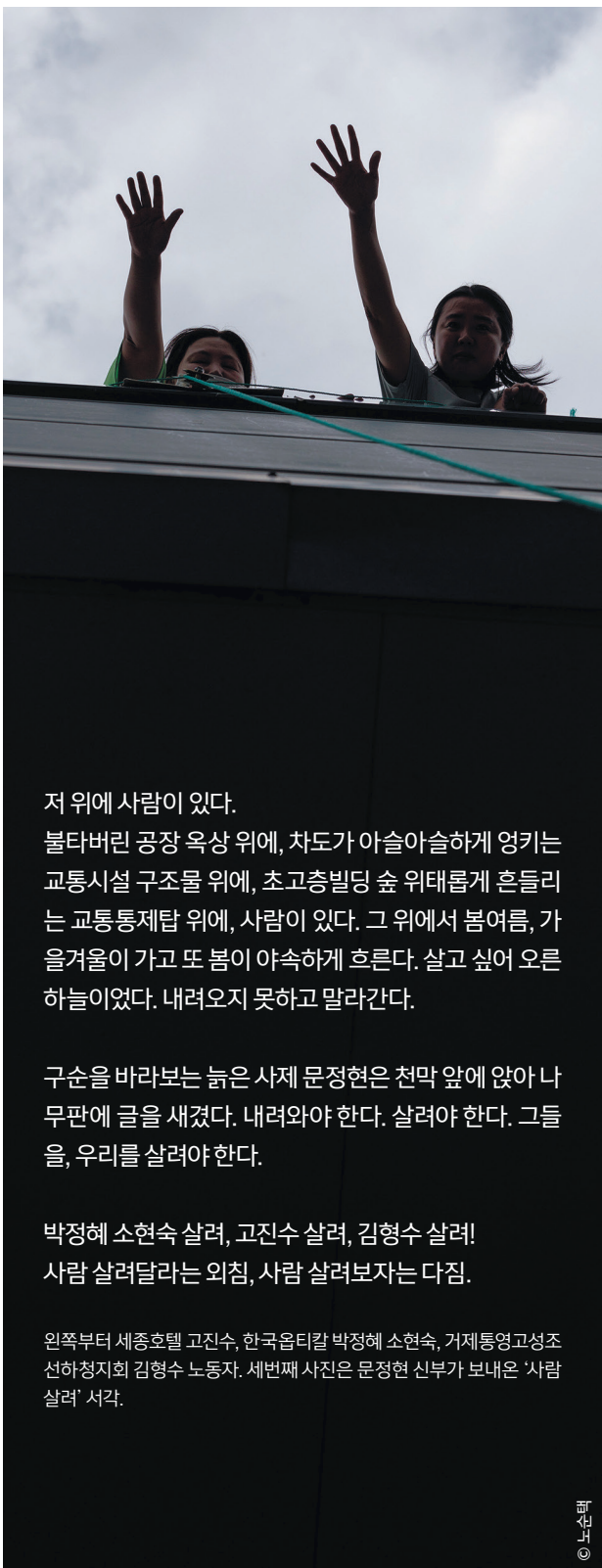




저 위에 사람이 있다.
볼타버린 공장 옥상 위에, 차도가 아슬아슬하게 엮키는
교통시설 구조물 위에, 초고층빌딩 숲 위태롭게 흔들리
는 교통통제탑 위에, 사람이 있다. 그 위에서 봄여름, 가
을겨울이 가고 또 봄이 야속하게 흐른다. 살고 싶어 오른
하늘이었다. 내려오지 못하고 말라간다.

구순을 바라보는 늙은 사제 문정현은 천막 앞에 앉아 나
무판에 글을 새겼다. 내려와야 한다. 살려야 한다. 그들
을, 우리를 살려야 한다.

박정혜 소현숙 살려, 고진수 살려, 김형수 살려!
사람 살려달라는 외침, 사람 살려보자는 다짐.

왼쪽부터 세종호텔 고진수, 한국유테칼하이테크 소현숙, 거제통영고성조
선하청지회 김형수 노동자. 세번째 사진은 문정현 신부가 보내온 '사람
살려' 서각.

“안 싸우고 세상이 바뀔까요?”

세종호텔 맞은편 철계구조물 98일 고진수

“회사가 싫으면 관두고 댄 데 가든가.”

요즘 회사와 싸우는 사람에 관한 기사를 쓰면 십중팔구 이런 댓글이 달린다. 구구한 사연이나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한 문장은 단숨에 비웃고 지나간다. ‘누갈협(누가 갈 들고 협박했어?)’ 시대를 관통하는 악플이다.

이런 악플을 쓰는 건 그들 잘못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들은 회사가 부당하게 대하면 나가고, 회사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내몰리면 나가는 게 당연한 세상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다. 감히 회사와 싸운다는 걸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납작한 세상에 살고 있을 수도 있다.

자신이 해고된 서울 명동의 세종호텔 앞 철계 구조물에 올라 지난 5월 13일 90일째 아침을 맞은 고진수씨(53)에게 ‘왜 다른 데 가지 않고 싸우느냐’고 물어봤다. 고씨가 답했다. “다른 데 갈 수 있다. 당연히. 그런데 다른 데 가면 다르냐는 거지.” 그는 세종호텔에서 일식 조리사로 20년간 일했다. 코로나19 유행 2년 이 다 돼가던 2021년 연말 해고됐다. 막바지에 그가 받은 월급은 230만원이었다. 기술이 있으니 갈 데도 있고, 어딜 가도 전보단 많이 벌 것이다.

그는 “왜 굳이 여기 남아 싸우냐는 질문은 10년 전부터 받았다. 나는 그제 지금 이 사회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세종호텔만이 아니라 호텔업계 전반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비정규직으로 일한다. 조건은 다 나빠졌다. 그런데 누구도 싸우지 않았다”고 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는다. 현재 호텔업계는 코로나19 당시의 충격을 극복했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서울 지역 호텔의 객실 매출액은 9814억원이었는데, 코로나19 이후인 2023년에는 객실 매출이 2조 1648억원까지 뛰었다. 그러나 총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서울 호텔 평균 33.36%에서 2023년 17.07%로 반 토막이 났다(한국호텔업협회 ‘호텔업 운영현황’).

재난을 이유로 인력을 줄이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는, 재난을 극복한 후에도 조여 맨 허리띠를 풀지 않는다. 일하는 사람의 뒤통은 적어지고 회사는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

자본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정하는 시대. 고씨의 고공농성은 자본(가)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상상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그는 “(회사가) 아무 거리낌 없이 이런 일을 반복해선 안 된다. 결과를 못 낼지언정 싸우는 데까지는 싸워서 자본도 이런 결정을 할 때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 당신들 마음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당신들 하는 짓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한 번 고민이라도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2021년 세종호텔이 정리해고를 통보한 직원은 15명이다. 모두 고씨가 지부장으로서 있는 세종호텔 노조 조합원이었다. 와해된 노조의 지부장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에 올랐다. 한 명의 일하는 사람으로 하려는 말도 있다. ‘법밖한 사람들도 회사라는 저 거대한 힘과 싸울 수 있다’는 것이다. 고씨가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89일째가 되는 지난 5월 12일 오전 9시, 그의 고공농성장을 찾아 24시간을 보냈다.

(2면으로 이어짐)

“때 밀고 빵 먹고 싶어요”

한국유테칼하이테크 공장 옥상 500일 박정혜

주차장은 텅 비어있다. ‘일시정지’ 문구가 무색하게 아무도 없다. 한때는 차가 많아 직원들이 정지선에 서서 좌우를 둘러보고 다닐 정도였다. “원래 이렇게 고요한 공간은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시끌시끌하고 사람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바람 소리 외에는 고요해요.”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박정혜씨(39·한국유테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가 말했다.

그 고요함이 싫다. “오래 기다리다 보면 사람들에게 잊혀지거든요. 친구들도 더 이상 연락이 안 오고, 연대는 꾸준히 이어져요. 그런데 이 공간(농성장)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조용해요. 그 텅 빈 곳을 저는 매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전하고 마음이 외롭죠.”

정혜씨는 1년 4개월 전인 2024년 1월8일, 경북 구미 ‘한국유테칼하이테크’ 공장 옥상에 스스로를 가렸다. 노동자를 버려두고 구미 공장을 철수한 일본 그룹 니토덴코에 고용 승계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극한의 환경을 어떤 마음으로 이겨낸 걸까. 앞으로 얼마나 더 버텨야 할까. 11일 국복신문 취재진이 옥상에 올라 정혜씨와 1박2일을 함께 했다.

“농성 그만두고 다른 일 찾으라”는 말도 종종 들죠.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이 회사에 내가 너무 많은 애정을 가졌죠. 재건할 거라는 기대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거지. 저는 불 났을 때 회사 불랑 처리해 준다고 LG디스플레이에 파견도 갔어요. 근데 이런 취급이잖아요. 희망퇴직으로 내보낸 사람들까지 불러들여놓고.”

한 마디로 ‘너무 억울해서’다. 정혜씨는 2011년 한국유테칼하이테크 공장에 입사했다. LG에 LCD 편광필름을 납품하는 일본 니토덴코그룹의 한국 자회사다. 2004년 니토덴코의 투자금 200억원으로 시작한 한국유테칼은 10년 만에 8천억원을 버는 회사로 성장했다. 구미시의 50년 토지 무상 임대와 각종 세금 혜택을 톡톡히 본 덕이다. 그러나 회사는 손쉬운 구조조정을 택했다. 2019~2020년 563명 중 465명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냈다. 이들 중 100여 명은 코로나 19 때 손을 빌린다며 도로 불러들이기도 했다. 급기야 2022년 12월, 공장에 화재가 나자 니토덴코는 화재보험금 1300억원가량을 수령한 뒤 공장을 아예 닫았다. 노동자를 버려두고 생산 물량만 펌팩 공장 ‘니토유테칼’로 이전했다. 두 공장은 일본인 대표이사 같은(하기와라 미치히로) 니토덴코의 한국 자회사다.

해고노동자 7명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투쟁에 돌입했다. 불탄 공장에 남아 숙식을 해결하며 공장 부지를 지켰다. 건물을 철거하려는 회사에 맞서 노조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거점이었다. 부지회장 정혜씨도 조직부장 소현숙씨와 함께 옥상에 올랐다.

“미리 계획한 건 아니에요. 원래도 철거 승인 떨어질까봐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날 새벽에 철거하는 아저씨들이 왔더라고요. 여기가 없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뭘 해도 잘 안 될 것 같아서, 짐 싸서 다급하게 올라왔죠. 조합원들은 몰랐어요. 옥상에 있는 저를 보고 ‘저 누나 왜 저기 있지’ 할 정도였어요.”

(3면으로 이어짐)

“너무 힘든 날, 오늘입니다”

한화그룹 본사 앞 CCTV 30m 첩탑 68일 김형수

“가장 힘든 날? 오늘이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 내일이 가장 힘들 것이다.”

지상 30m 위 CCTV 첩탑에는 거센 바람이 불었다.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일 라치면 첩탑이 흔들거린다.

두 차례 단식 농성을 하고도, 파업 투쟁을 하고도 끝내 해결되지 못한 조선소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은 김형수(52)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을 결국 바람 세찬 하늘로 오르게 했다. 원래 까마귀가 자리 잡았던 이곳에 60일째 사람이 산다. 까마귀의 집은 이제 지상에서 내몰린 인간의 집이 되었다.

고공농성 60일차인 13일 오후 4시 김 지회장을 고공에서 만났다.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에서 사다리차를 타고 30m를 올라가 김 지회장을 마주했다. “사람이 있다”고 적힌 흰색 장막을 걷어내자 형형한 눈빛을 한 김 지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 CCTV 첩탑은 몸을 90도로 뉘어야만 겨우 잠을 청할 수 있는 곳이다. 김 지회장이 까마귀 이야기를 꺼냈다. “한동안 까마귀가 계속 찾아왔다. 자기 집 빼앗겼다고 내 뒤통수를 때리고는 날아가더라. 미안하더라고.” 그야말로 누구보다 첩탑 아래로 내려가고 싶은 사람이다.

김 지회장은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매일 첩탑 벽면에 바를 정(正)자를 한 자씩 꼭꼭 새긴다. 이 첩탑을 그린 그림도 벽면에 붙어 있다. 그는 ‘괴리’ ‘고문’ 같은 단어를 되뇌며 매일매일의 고투를 전했다.

“우리끼리 그런 이야기를 한다. 500일 된 박정혜와 100일 된 김형수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고. 다들 김형수 하겠다고 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농성 기간이) 짧은 게 낫다고.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나를 괴리시킨다. 그 괴리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이 사회적 괴리로 사회적 문제를 반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다. 고문 같은 거라고 생각한다. 하기 싫다. 불이 났는데 사람을 끌고 가서 불이 났으니 보라고 할 수 없으니 ‘불이야’ 소리 지르는 그런 거다.”

— 큰 각오를 하고 올라왔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생각보다 (첩탑이) 더 많이 좁더라.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더라. 3월에 눈도 오고 날씨가 계속 추웠다. 아직도 핫팩을 깔고 잔다. 저녁이 되면 산바람이 불고 낮이 되면 강바람이 분다. (건물 사이로도 부는) 바람이 있고.”

—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인가.

“이대로 계속 안 바뀌고 같가 싶어 무섭다. 그러면 나는 계속 여기 있어야 하니. 예전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다. 나도 희망을 찾아서 조선소로 간 사람이 다.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힘든 일은 있어도 열심히 일하면 더 나은 삶을 지닌 인간으로 살 수 있겠구나 싶었다. 이곳은 그냥 힘든 게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곳이었다. 조선소에서 사람답게 살려면 사람다움을 버려야 했다. 아이러니한 건데 조선소가 그렇더라.”

(4면으로 이어짐)

(1면에서 이어짐)

정규직 쫓아내고 용역으로 채운 호텔

사다리틀 오르자 높이 140cm, 폭 80cm의 하늘 움막에 몸을 구기고 있는 건장한 체격의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웃으며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면 삭발한 머리, 검게 그을린 얼굴, 깎지 않은 콧수염은 한층 위압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가 머무는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은 명동역 앞 왕복 6차선 도로 위에 세워진 10m 높이의 철제 구조물이다. 그는 지난 2월 13일 이곳에 올라와 합판 등으로 길고 비좁은 터널 같은 공간을 만들었다.

키 183cm, 몸무게 80kg인 고씨는 이 좁은 공간에서 온전히 몸을 쭉 펼 수 없다. 고씨는 “90일쯤 되니 팔꿈치, 무릎, 고관절이 아프다”고 했다. 이따금 지하차도로 큰 차들이 진입할 때면 철제 구조물 전체가 흔들렸다. 그 진동이 온몸으로 전달됐다. 그때마다 땅에서 바라봤던 이 구조물의 철망으로 된 바닥면이 생 각나 혼자 몹서려왔다.

기어 다니다 관절 손상까지

이 움막 양쪽 끝에는 성인 남성 두 명이 간신히 서 있을 만한 공간이 있다. 시민들이 농성장을 방문하면 고씨는 여기 서서 북을 치고 손을 흔든다. 그곳에 서면 그가 20년을 몸담았던 세종호텔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코로나 19 대유행이 한창일 때 ‘포스트 아포칼립스(멸망 이후)’ 세계를 그린 영화처럼 사람 한 명 보이지 않던 서울 명동 거리는 지금은 활기를 찾았다. 코로나19 이전처럼 세종호텔 앞은 관광객이나 택시가 정차해 있다. 돌아온 관광객들이 트렁크를 끌고 지나간다. 고씨와 동료들만 그대로 황량한 세계에 남았다.

2021년 연말 세종호텔은 고씨 등 12명을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대상자 15명 중 3명은 희망퇴직)했다. 법은 정리해고하려면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엄중한 규정이 법원에서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절차들을 거쳤는가’로 한결 가벼워진다. 고씨 등은 해고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1심부



서울 명동 ‘용하다 한의원’을 뒤에 두고, 용하지만 힘겹게, 요리노동자 고진수가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누가 그를 주방에서 하늘간옥으로 올렸는가.

“싸울 수 없는 당신을 위해” 오늘도 명동 하늘은 투쟁

터 최종심까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세종호텔은 2020년 한 차례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유급휴직을 시행했다. 임금은 삭감했다. 이듬해까지 6차례에 걸쳐 희망퇴직 공고를 냈다. 이를 두고 법원은 해고를 피하려는 절차는 거쳤다고 봤다.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당시 세종호텔은 고용유지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이었다. 노동자의 휴직기간 임금에서 10%만 부담하면 되는 상황이었는 데도 2021년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당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라는 이름으로 이뤄졌다. 해고 본질이 더 많은 이익을 내려는 구조조정이었다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뚜렷해진다. 각종 지표가 근거다. 세종호텔 객실 매출은 2023년 92억원, 2024년 123억원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2019년 108억원)을 회복했다. 반면 총매출에서 인건비(용역비 포함) 비중은 2019년 14.5%에서 2024년 11.88%로 하락했다. 이미 2019년에도 서울 호텔 평균(33.36%)보다 낮았던 인건비 비중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중이다.

2011년 270여명의 직원이 일하던 세종호텔에는 현재 정규직 21명만이 일하고 있다. 하청업체 비정규직 인력을 포함해도 60여명 수준이라고 한다. 333개 객실을 운영하는 호텔

치고는 적은 숫자다. 고씨 등의 부당해고 재판에서 세종호텔 측은 코로나19로 26명의 최소 근무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은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감염병 종식 이후 업무가 훨씬 많아졌는 데도 회사는 위기 때 정한 최소근무인원보다 더 적은 인원으로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세종호텔의 직원 급여는 6억2000만원에 불과한 반면 용역비는 8억7000만원에 달했다. 고용은 줄이고 하청을 늘리는 구조조정이 재난을 기회 삼아 완성된 셈이다.

10여 년의 노조 탄압

정리해고자들은 모두 민주노총 산하 세종호텔노조의 조합원들이었다. 이는 세종호텔에서 10년 넘게 지속된 노조 탄압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고씨는 세종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양학원의 전 이사장인 주명건씨가 2009년 세종호텔 회장으로 온 뒤 노조 탄압이 거세졌다고 본다. 2011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호텔에는 ‘세종연합노조’라는 새로운 노조가 생겼다. 그해 초부터 호텔은 세종호텔노조 간부들에 대한 부당 인사 조치를 했다. 프린트 근무자를 호텔 커피숍 서버로 보내거나, 교환 근무자를 룸메이드로 발령했다. 특

정 노조에 대한 불이익은 직원들에게 분명한 시그널을 줬다. 당시 직원 270여명 중 180여명이 세종연합노조에 가입했고, 세종호텔노조는 소수노조가 됐다.

2012년 세종호텔노조는 부당전보 철회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 파업 기간 고씨 등은 구사대로 나선 세종연합노조의 동료들과 쌍욕을 주고받으며 몸싸움을 해야 했다. 파업이 끝나고도 노노 갈등이 이어졌다. 주방에서는 후배 조리사가 파업에 참여한 부주방장을 끌어내기도 했다. 파업을 함께 했던 동료 일부는 노조를 탈퇴하고 세종연합노조로 옮겼다. 이후 세종연합노조는 사측이 원하는 대로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바꾸고,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 고씨 등은 세종호텔노조 소속이라는 이유로 진급 대상에서 빠졌고, 기피 업무에 배치됐다. 저성급자로 임금도 깎였다.

고씨는 “파업 당시에는 당연히 분노했다. 달관한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이해됐다. 그들에게는 호텔 일자리가, 직급 유지가 생존의 문제만큼 큰 거였다. 나는 인간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회가 돌아가는 구조가 사람을 절박하게 하고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든다고 본다. 자본주의라는 것이 사람이 선의로 갈 수 있는 길을 협소하게 만들

고, 인간 관계들을 단절시킨다”고 했다.

노조는 법정에서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만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정리해고 대상자를 정하기 위해 회사가 진행한 절차에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이 참여하지 않았기에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해고된 것이라고 봤다. 당시 교섭 대표 노조로서 세종호텔노조는 정리해고 이외의 대안을 찾자며 해고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이 요구를 거부한 회사는 세종연합노조 조합원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협상 테이블을 꾸리고 정리해고를 진행시켰다.

“우리가 바꾸어야 합니다”

사다리틀 올라간 오전 9시 직후 시작한 고씨의 인터뷰는 밤 11시 잠자리에 들면서 끝이 났다. 저녁 8시 밥을 먹기 위해 잠시 멈춘 것을 제외하고는 쉼 없이 이야기를 들었다. 90일째 웅크리고 생활하다 보니 소화기 안돼 점심은 먹지 않는다고 했다. 14시간 남짓 머물렀는데도 허리와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져 어느 순간부터는 옆드려서 그의 말을 받아 적었다. 고씨는 한없이 길어지는 인터뷰를 두고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거 아니고 얼마든지 괜찮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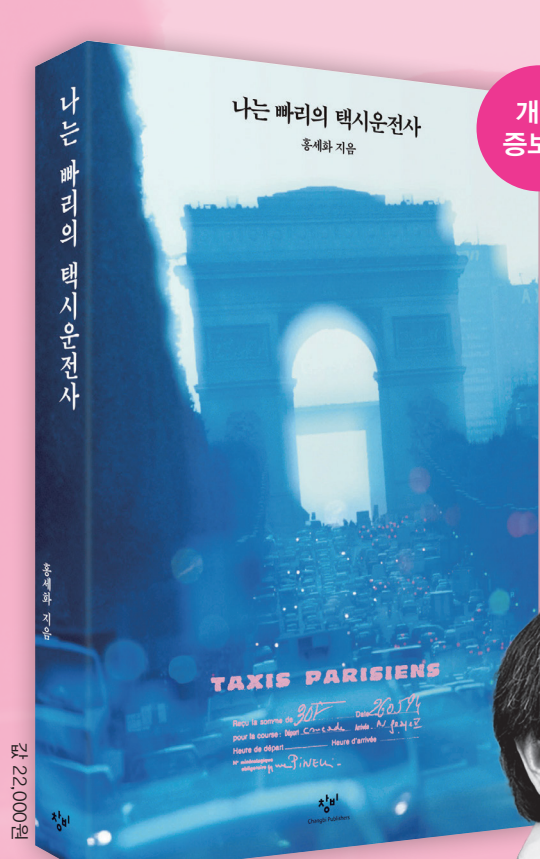
고씨는 오랫동안 싸운 사람이다. 2013년부터 9년간은 목요 집회, 해고 이후 3년간은 평일 호텔 앞 농성을 빠짐없이 했다. 십여 년간 한 번이라도 그의 말을 귀담아들었다면, 그런 사람이 많았다면 그가 고공에 오를 일도 없었는지 모른다.

고씨가 고공에 올라오기 전 콜센터에서 해고된 노동자 A씨에게 들었다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A씨는 해고 직후 부당한 해고라고 느꼈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떠오른 건 출퇴근 길에 봤던 세종호텔 해고자들의 농성이었다. A씨는 피켓을 만들고 자신의 회사 앞에서 싸움을 시작했다. 지난 5월 13일 오전 8시 고씨는 철제 구조물 끝에 올라 명동 거리를 향해 확성기를 쥐고 말했다. “어떻게 세상이 바뀌니까. 우리가 바꾸어야 합니다.” 고씨는 오늘도 고공에서 싸운다.

글·사진 이효상 주간경향 기자



고진수의 비좁은 홀로 고공농성장 벽에서 하루하루가 흘러간다.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홍세화 지음
개정 증보판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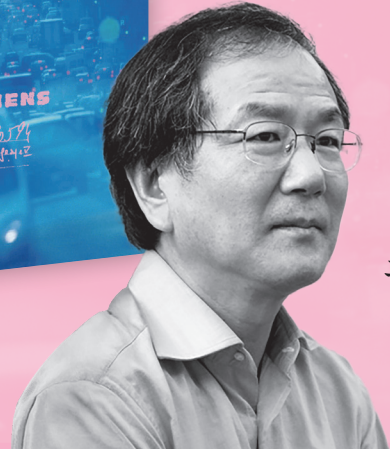
“세상을 혐오하기는 참으로 쉬운 일이다.
혐오하기보다는 분노하라.
분노하기보다는 연대하고 동참하라.”

소외된 이들의 벗이자 영원한 아웃사이더
故 홍세화의 시작점이 된 단 한권의 책

『레미제라블』에 장발장을 구원해준 미리엘 주교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홍세화가 있었다.
많은 이들이 오래도록 그를 그리워할 것이다. - 유홍준 前 문화재청장

홍세화 선생님이 삶의 마지막에 이르러 내게 건넨 단어는 ‘겸손’이었다. 내가 아는 그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 김민섭 작가

인간의 품위, 그 품위를 위해 평생을 싸웠고 내가 아는 한 가장 품위 있게 살았던 사람.
-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홍세화 지음

창비 Changbi Publishers

(1면에서 이어짐)

500일이나 버텼는데 그냥 내려갈 순 없다

이제는 경찰도 지키지 않는 현장이 됐다. “우리는 오래됐으니까요.” 무거운 마음으로 올랐지만, 500일이나 갈 거라곤 생각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목소리 내고 싸우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했다. 니토덴코는 외면했다. 구미 공장 고용승계 대신 팽택 공장에 156명을 신규 채용하는 길을 택했다. 정혜씨는 그 이유를 두고 “노동조합원이 싫어서”라고 말한다. “지금은 확실해요. 노조가 싫은 거고 우리가 팽택 가면 거기다 또 (노조) 조직할까 봐 더 싫은 거고. 예전엔 일본 기업이 그렇게 노조를 혐오하는지 몰랐어요.”

정혜씨(아래 사진 왼쪽)가 텐트 안으로 취재진을 들였다.(아래 사진 오른쪽) 현숙씨와 함께 생활하던 자리다. 얼마나 오래 앉았는지 텐트 바닥이 움푹 패다. 현숙씨는 476일째인 지난달 27일 먼저 땅을 밟았다. 스트레스로 치통이 심해졌다. 더 있었더라도 몸이 망가져 여름을 지내기 힘들었을 거라고 정혜씨는 말했다. 오후 5시 기온은 20도, 옥상 바닥 온도는 37.4도였다. 13일부터 낮 최고 기온이 29도까지 오른다는 예보가 벌써 무섭다고 했다.

“제일 두려운 게 여름이거든요. (지난해 여름) 텐트 안에 너무 뜨겁고 숨이 팍팍 막힌 느낌이어서 진짜 ‘죽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열음을 안아도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현숙 언니는 (지난 여름에도) 이가 아픈 상태에서 밤도 제대로 못 먹고 버텼어요. (올봄엔) 치통이 너무 심하게 오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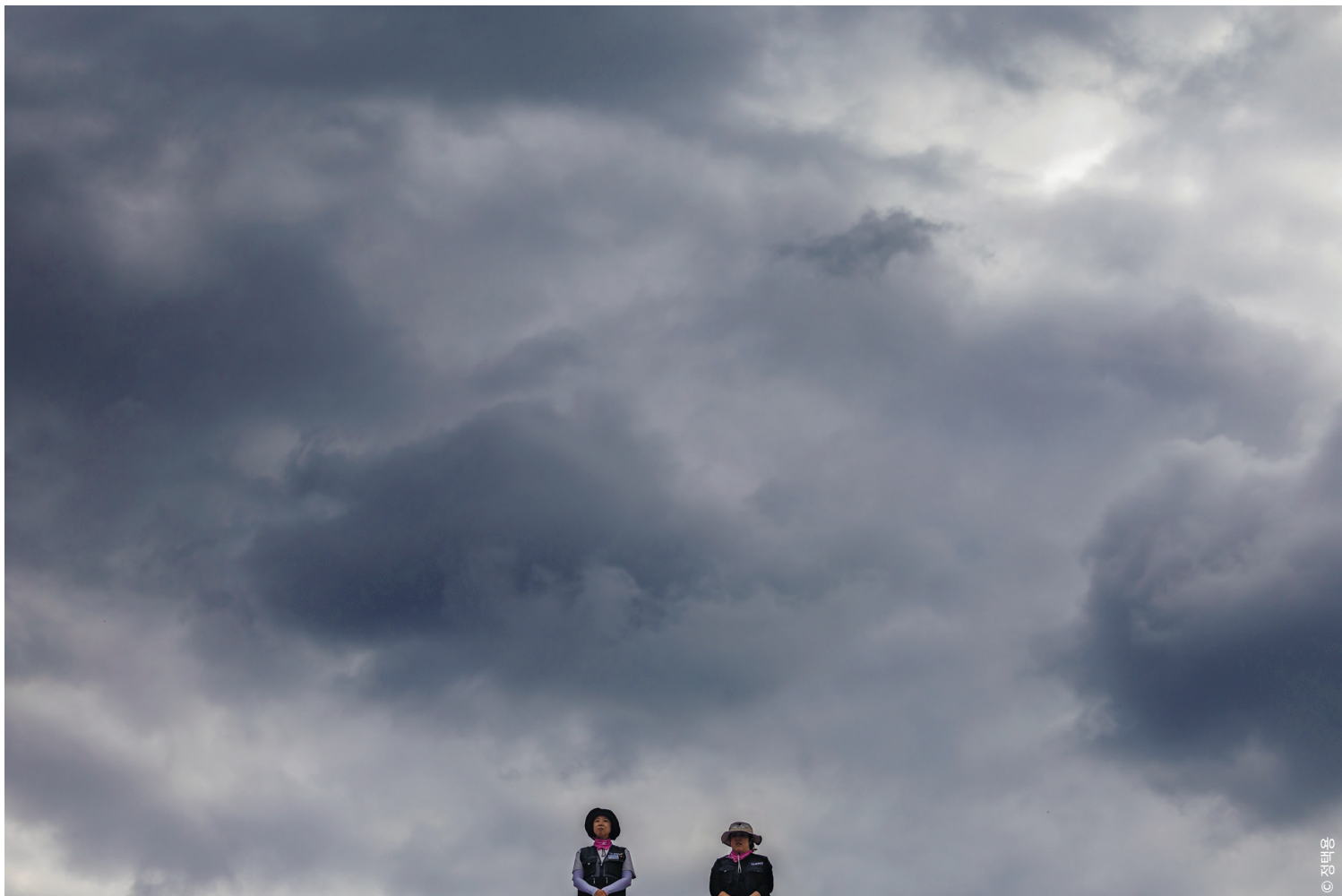
‘숨 팍팍 막히는’ 여름 오기 전에

현숙씨 내려가는 모습을 보며 정혜씨 마음도 복잡했다. 같이 내려가고 싶었다고 한다. “나는 아직 여기서 할 일이 남아있다” 생각하며 버텼다고 했다. 정혜씨가 덧붙였다. “정말 (고공농성용) 여름 전에 끝내게 해 줘야 해요. 내 몸이 못 따라갈 것 같아.”

동료가 떠난 공간은 허전했다.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져 잠을 설치곤 한다. 최근 신원불명 남성이 한밤중 지회 사무실에 불쑥 들어왔다. 비바람도 신경 쓰였다. 신경을 긁는 바람 소리와 텐트를 바닥부터 밀어 올리는 힘이 무섭다. 밤중 고인 빗물로 텐트 천장이 머리맡까지 축 늘어져 화들짝 깬 적도 있다. 그땐 돌이켜 힘을 합쳐 어찌어찌 해결했지만, 지금은 혼자다.

늦어도 아침 7시면 일어나 텐트 안을 정리하고 세수한다. 좁은 옥상을 뱅뱅 돌며 걷는다. 꽃에 물 주고, 뜨개질하고, 사람들에게 읽어줄 발언문 쓰고, 지회 회계업무 보고, 분리수거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공간이 싫다가도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하루를 또 버티더라고요.”

500일이 될 줄은 몰랐다. “뭘라도 해서 우리 얘기를 빨리 알리고 이 생활을 끝내고 싶었어요. 내 희생으로라도 끝내보겠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정혜씨는 “500일이 희생이라는 건 아니”라고 했다. 지금도 매일 같든 한다. 몸 상하는 게 걱정이다. 한편 500일이나 했는데 그냥 내려갈 순 없다는 생각도 한다.



두 사람이 함께 시작한 고공투쟁이었다. 버티고 버티고, 견디고 견뎠다. 한 명이 먼저 내려왔다. 한 명이 내려오지 못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내려오지 못한 것이다. 오늘로 500일, 고된 하루가 다시 흐른다.

“나는 아직도 여기서 할 일이 남아있다”



답이 없으니 하루만 생각하기로 했다. “오늘 하루 어쨌든지 생각하고 내일은 괜찮겠지 해요.”

500일이 될 줄은 몰랐다

정혜씨도 한때는 “뭣도 모르고 노동자 편이 아닌 사람들 말을 그대로 믿었던 사람”이다. 막상 동료들이 직원과 경찰에게 밀쳐지는 모습을 보고 “내가 세상을 참 몰랐구나 싶었다.” 지금은 ‘운명’이 달라졌다. “오래 전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 연락해 ‘네가 그런 걸 하고 있더니 너무 깜짝 놀랐다고 해요. ‘전사’투쟁가’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좀 부끄럽죠. 노동운동 이런 거 관심 없던 사람이 올라와서 500일 맞다는 의미로 자꾸 ‘투쟁 전사’라는 말 듣는 게 부끄럽긴 해요.”

정혜씨와 잠시 걸었다. 불에 녹아 휘어진 공

장 패널이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린다. 옥상 맛은 편편 높다란 아파트 숲이 있다. 그 너머 정혜씨가 사는 아파트도 있다. 공장에서 길 건너 5분 거리다. 가지 않았다. “싸워야 하는 현실이 있고, 시작했기에 어떻게든 끝은 봐야 한다. 나는 아직 내 할 일을 덜 했다.”

연대하는 동지들이 있기에 힘을 낸다. 이날도 ‘말벌 동지’들은 정혜씨가 보이는 곳에 돛 자리를 깔고 쉬었다. 이들은 수원에서, 부산에서 시간이 될 때마다 온다. 세종호텔 고진수 동지와 한화오션 김형수 동지와는 영상 통화를 한다. “내 사업장 투쟁할 때는 너무 바빠서 몰랐어요. 다 연결된 얘기이고 따져보면 거의 같은 문제라는 걸요. 같은 문제라면 서로 힘을 주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한결같이 같이 싸워주다 보니까 연대 단위가 더 커지더라고요.”

저녁은 6시반쯤 먹었다. 소화 능력이 좋지



않아서 7시 전에는 먹으려 한다. 저녁 먹고 1시간 정도 옥상에서 걷지만 소화가 다 되는 느낌은 아니다. 이날 저녁 메뉴는 ‘말벌 동지’가 만들어준 토마토 수프였다. 점점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진다. 텐트 안에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도 불편하다 보니 온몸이 빠근하다. 자주 스트레칭을 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뭉친 근육들이 다 풀리진 않는다.

정혜씨가 노을 지는 시간이라고 텐트 밖으로 나가자고 했다. 아파트 건물 사이로 해 지는 풍경이 펼쳐졌다. 정혜씨는 “예뻐서 노을을 많이 봤다”고 했다. 해가 지자 맞은편 아파트 수십 가구 창문에 불이 들어왔다. 처음에는 맞은편에 사람들이 신경 쓰였지만 이 불빛이 없으면 적막했을 것 같기도 하다. 한편 이 빛을 보면 마음이 아팠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라는 감정이 올라왔다.

한 시간여를 걸으니 어두워졌다. 오후 9시

세수하고 이를 닦았다. 옥상 한쪽에 놓인 세숫대야에 생수를 조금 부어 얼굴을 씻었다. 씻은 물은 배수구에 버린다. 남은 비눗물은 변기에 대어놓은 물통을 닦는 데 쓴다. 샤워는 엄두내지 못한다. 물이 귀하기에 아껴야 한다. 땀을 닦는 쿨시트로 몸을 닦고 머리는 3일에 한 번씩 감는다. 여름에만 몸을 식히기 위한 용도로 샤워를 했다. 체온이 올라간 만큼 내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얘기 많이 하고 좋았어요”

저녁이 되니 추워졌다. 정혜씨는 여전히 긴 팔 상의를 입고는 겨울 이불을 덮고 잔다. 텐트 하나에 의존해서 살기에 날씨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텐트는 비에도, 바람에도, 더위에도 취약하다. 매일 일기예보를 볼 때 바람의 방향과 세기도 본다. 아래에서 위로 치는 바람, 위에서 치는 바람은 다르다. 어떤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 텐트가 찢어질 수도 있다. 이날 바람 세기는 1~2였다. 정혜씨는 “정말 약한 바람”이라며 “최근 바람이 심한 날 세기 14까지 갔었다”고 말했다. 바람이 심하게 불면 텐트를 고정하려 바닥에 박아놓은 못도 빠지기에 조심해야 한다.

정혜씨는 밤 10시에는 잠들려고 한다. 혼자 남겨진 최근 새벽엔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이날은 정혜씨 텐트 밖 1인용 텐트에 2명의 취재진이 각각 잠을 청했다. 침낭에 의존한 5월의 밤은 예상과 다르게 많이 추웠다. 취재진 예전 고작 하룻밤이었다. ‘텐트 집’에서 500일을 지냈다는 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된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정혜씨는 오랜만에 폭 잤다고 했다. “내 텐트 바로 옆에 사람들이 있구나 안심이 됐어요.” 이 말이 무색하게 취재진은 오전 8시 옥상을 내려왔다. 정혜씨가 취재진을 배웅했다. 지상에 발을 디뎠을 때 정혜씨는 여전히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전날 현숙씨 내려가는 길을 보면 자신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말이 떠올랐다. 그는 이날도 내려오지 못했다.

정혜씨는 고공농성 기록을 경신하는 중이다. 여성이 500일을 고공농성한 건 처음이다. “최장기 고공농성이라는 말이 너무 싫어요. 너무 오래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계속해서 제 이름이 (고공농성자)로 어디 올라올 것 같고. 제일 힘든 거는 진짜 정신적인 거죠. 앞이 안 보이는 거….”

500일 동안 농친 게 많다. 그사이 태어난 조카를 안아보지 못했다. 농성 이전 자신의 사진을 보면 어색하다. “이럴 때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라도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싶다. 땅으로 내려가 “때를 뽀뽀 밀고” 싶고 조가 생일도 챙기고 싶다. 인스타그램에 저장해둔 레이어드 컷 스타일의 머리로 하고 싶다. 포항 오션뷰 카페에 앉아 비싼 빵도 먹고 싶다.

서울로 돌아온 취재진이 고맙다고 문자를 보내자 정혜씨가 답장을 보냈다. “오랜만에 얘기 많이 하고 좋았어요.” 땅에서 만나 다시 많이 이야기하기로 했다. 머지않은 시간에.

글·사진 구미/신다는한겨레21기자, 임아영 경향신문 기자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입주민 갑질 · 핸드폰 판매노동자의 족쇄 계약 · 방송국 비정규직 PD의 부당해고 · 국가정보원 정년 차별 · 택시기사의 사납금 거부
파견노동자의 성희롱 · 현장실습생의 노동 착취 · 골프장 캐디의 직장 내 괴롭힘 · 이주노동자 노예제도 · 비정규직 노동자 형사 · 동양시멘트 손배·가압류

노동인권 변호사 윤지영이 함께한 노동자들의 법정투쟁 이야기

안녕하세요, 한국의 노동자들! 윤지영 지음



열한 편의 사건들은 무겁고 진지하지만, 이야기가 재밌다. — **박래군** 인권운동가

많은 당사자가 용기를 내는 안내서가 되길 바란다. —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노동자들과 변호사가 노동법을 현실의 법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 **김선수** 전 대법관

아프게 읽었다. 남 일이 아니라 내 일이어서. — **박서련** 소설가

아름다운 책이다. —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평범한 사람이다. 지금 당선이 지나가는 길 위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누군가 두 달 넘도록 감옥에 갇힌 모습을 구경할 수 있다. 아래도 좋은 모습인가. 그는 탄원인가.

“얼마나 큰 영화 누리려 저 높고 좁은 곳에서 미친듯 버티고 있나 궁금한가”

(1면에서 이어짐)

거제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던 17년차 용접 공은 “조선소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현장으로 바뀌면 좋겠다”고 했다.

“집을 빼앗긴 까마귀가 매일 찾아왔어요”

CCTV 첩탐 위에 선 그의 옆에는 28층짜리 커다란 흰색 건물인 한화 본사가 자리하고 있다. 조선소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현장이 되지 못하는 것은 과연 누구 책임일까. 한화오션의 배를 만드는 하청노동자들은 여전히 한화 오션과 직접 교섭하지 못한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아래 거통고지회)는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지역의 여러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가입한 지역 노동조합이다. 거제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도 상당수 가입했다. 거통고지회는 2024년부터 조선소 하청업체들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교섭에서는 2016년 불황을 이유로 삭감한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상여금 550%를 회복할 것을 주요하게 요구했다. 하청업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용직(하청업체의 무기계약직) 확대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몇 년 만에 조선소에도 소위 ‘K-조선업’이라 부를 정도의 호황이 다시 찾아왔다. 한화오션은 2024년 한 해에만 2379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정작 조선소에서 배 만드는 하청노동자 임금에는 삭감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했다.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정도의 돈을 받을 뿐이다. 김 지회장은 하청노동자들이 저임금 일 자리에 신음하는 현실을 두고 “조선소 현장에서 일 많이 하고 돈 적게 받는 하청노동자가 아니었으면 조선업이 다시 잘 됐을까”라고 되물었다.

K-조선은 호황, 하청노동자는 밀바닥 신음

김 지회장이 첩탐에 오른 뒤에도 원청인 한화오션은 지회 핵심 요구사항인 상여금 지급 요구도, 상용직 고용 확대 요구도 거부했다. 한화오션은 “이는 각 하청업체가 근로자 대표와 교섭해야 하는 고유의 경영활동으로, 한화오션에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한화오션이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인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022년 12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점을 인정했다. 한화오션이 ‘교섭에 의무가 없다’고 버티는 동안 2024년에만 한화오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김 지회장은 “조선소 산재 사고의 대부분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일이다.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가 일어난다”고 했다.

김 지회장이 울분을 삼키며 말했다. “웃기는 거다.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누가 다치거나 쓰러지면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도와주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하청노동자들 교섭에 법적 책임

이 없다고 모른 척하는 것이 말이 되나? 2016년 조선소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면서 현장 노동자들의 삶이 무너지는 걸 보다 보면 지옥 같았다. 거제 앞바다에서 매일 자살해서 (시체가) 떠올랐다. 갑자기 모든 문제가 닥치니 그렇게 됐다. 우리가 어디서 100만원을 훔쳤다고 생각해보라. 훔친 이는 법정에서 처벌받을 것이다. 그런데 임금을 100만원 안 주는 것은 어떤가? 그렇게까지 처벌 안 한다. 사실 훔친 거랑 임금을 안 주는 건 똑같은 것인데도 그렇다.”

13일 이용우·하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사다리차에 올라 김 지회장을 만났다. 김 지회장은 의원들에게 “국회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대선도 대선이지만 하청노동자들의 요구에 진정성을 갖고 실질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주셔야 한다. 이것은 나의 요구이자 시민, 주권자로서 하는 요구”라고 했다.

푼돈 흠치면 처벌, 임금 흠치면 방관

김 지회장은 “시민들이 더는 실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만일 이번에 또 실망하게 되면 나는 정말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 지회장 말에 의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 지회장은 의원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주먹을 꼭 쥐어 보였다. 의지를 다지는 듯했다.

김 지회장은 고공농성을 하면서 종종 박정해 한국옵티컬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랑 영상통화를 한다. 김 지회장은 “고공농성을 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정상일 수가 없다. 스트레스가 밀(지상)에 있을 때 1 정도였던 것도 위에서는 5 정도까지도 받는다”라며 “고공에 더 오래 계신 분들은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다. 같은 입장에 선 이들끼리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영상통화로 만난다”라고 말했다.

김 지회장이 하루에 가장 많이 보는 것은 휴대전화 액정이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여러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고공농성 소식을 하루하루 일기처럼 전한다. 생각한 바를 적어 내려간다. 고공농성에 연대하러 온 시민들이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지새운 10일 오전 그는 이렇게 적었다.

“고공농성 57일차. 한화 본사 앞 텐트촌 풍경입니다. 비가 부슬부슬 옵니다.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절로 생기는 아침입니다. 연대는 서로를 아름답게 만드는 행위라는 것을 확인하는 아침입니다. 세상이 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본가들도 서로에게 이런 존재일까?”

김 지회장이 아무리 자신을 “힘들면 힘들수록 강다구가 생기는 사람”이라고 보아도, 그 또한 “간간이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리면 여기까지 올라온 목적을 잊고 나쁜 생각을 할 때도 있는” 평범한 사람이다.

사다리차가 지상으로 다시 내려오니 퇴근 시간이 곧이었다. 거통고지회 조합원들은 저녁 선전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거통고지회에 연대하던 시민들은 광장에서 김 지회장과 만

난 뒤 지회 조합원이 됐다. 신입 조합원이 바라보는 고공농성은 어떨까. 맘마씨는 “밑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쉽게 ‘저 위에 진짜 사람이 있네’라고 말하고 지나가기도 한다. 저 위에 사람이 있다는 말이 그들에게 과연 얼마나 전달이 제대로 될까”면서도 “어떻게 해야 이 투쟁을 더 제대로 알려 사회적 여론을 만들어 자본에게 압박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고 말했다.

“저 위 진짜 사람이 있네”

이날 저녁 선전전에는 유쾌한 전 거통고지회 부지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2022년 6월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치면서 조선소 1도크 바닥에 가로세로 1m 크기 감옥을 만들어 자신을 스스로 가둬다. 막 건물 밖으로 나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퇴근길 시민들 틈에서 발언하기 시작했다.

“서울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길 위로 고개를 들어 잠시 하늘을 보면 한 명의 노동자가 60일째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영화를 누리려고 저 좁은 곳에서 60일을 버티고 있나 궁금하신가요. 한 달에 30만원 정도의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조원이라는 돈으로 대우조선을 인수한 한화오션은 저임금 하청노동자의 한 달 30만원 임금 인상 요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녹색불이 들어오자 시민들은 제각기 가던 길을 재촉했다.

글·사진 유지영 오마이뉴스 기자

불평등 체제를 유지하는 강력한 도구 한국에서 불평등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승리하고 있는가?

북유럽 복지를 원하는 한국인은 왜 미국식 경제를 추구하는가
데이터가 말하는 불평등·불공정 공화국의 실체!

저자는 한국에서 불평등 지배 이데올로기가 절반만 성공했다고 진단한다. 수저 계급 사회의 부조리에 분노하는 깨어 있는 시민이라면 20가지 질문으로 한국 불평등 연구의 새 장을 연 이 책을 읽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것이다.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지식안전네트워크 공동대표)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 불평등을 제대로 천착해온 조돈문 교수의 이번 책이 몹시 반가운 이유가 여기 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훌륭한 출발점이자, 빠트려서는 안 될 귀한 자료다. 일독을 강추한다!

박태웅 (독서포럼 의장, 《눈 떠보니 선진국》《박태웅의 AI 강의》 저자)

한국 근현대 정치·경제·역사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자본·노동이 각축하며 걸어 온 모든 길이 막 들어찬 참다운 지식의 공간. 한 장 한 장 읽어갈수록 미국과 진창이 되어 어지럽고 복잡하며 혼탁한 세상의 실상이 밝아지고 명료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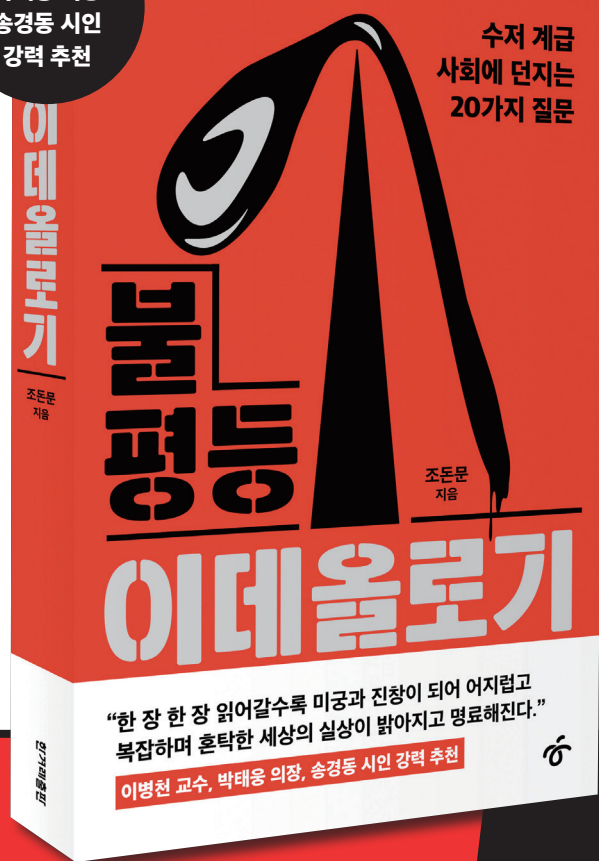
송경동 (시인 《내일 다시 쓰겠습니다》 저자)

불평등 이데올로기

수저 계급 사회에 던지는
20가지 질문

조돈문 지음
가톨릭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노회찬재단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 선진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병천 교수
박태웅 의장
송경동 시인
강력 추천



“한 장 한 장 읽어갈수록 미국과 진창이 되어 어지럽고 복잡하며 혼탁한 세상의 실상이 밝아지고 명료해진다.”
이병천 교수, 박태웅 의장, 송경동 시인 강력 추천

356쪽 | 23,000원

한가리출판

“하루만 올라가 있는 줄 알았어요”

‘하늘 사람’ 돕는 사람들 … 옵티칼 ‘반찬연대’ 큰 힘

“하루만 올라가 있는 줄 알았어요. ‘내일은 우리가 올라갈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정나영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은 지난해 1월8일 아침을 이렇게 기억했다. “급한 일이 있다”는 지회장 연락을 받고 경북 구미공장으로 달려갔다. 정 조합원이 도착했을 땐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이 공장 위로 이미 올라간 뒤였다. 정 조합원은 그 뒤로 박정혜가 500일이 다 되도록 내려오지 않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박정혜가 고공에 오른 지 500일(5월21일)을 일 주일여 앞둔 12일 만난 정 조합원은 “사태가 해결돼 500일을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조합원을 포함한 지회 조합원 6명은 지사에서 투쟁을 이어가면서 음식 등 고공농성 필요 물품을 지원한다. 저녁 때 요구르트, 삶은 계란 등 다음 날 조식용 음식도 같이 올려보낸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내 ‘반찬 연대’가 꾸렸기에 가능한 일이다. 월, 화, 수요일에는 반찬 연대의 도움으로 식사 지원을 해결한다.

고공농성 초기였던 지난해 초만 해도 삼시 세끼를 올려보내곤 했다. 농성 장기화로 박정혜의 소화력이 떨어져 끼니 수가 줄었다. 정 조합원은 박정혜의 ‘먹고 싶은 음식’ 자체가 줄었다는 점을 애석하게 여겼다. 항상 “뭐가 먹고 싶냐”고 공장 아래에서 육성으로, 통화로 묻는 게 정 조합원 일이다. 정 조합원은 “입맛도 없어지고, 소화도 점점 안 되니까 먹고 싶은 의지가 줄어드는 것 같다”고 했다.

“이렇게 오래갈 줄 몰라서”

박정혜는 여성노동자로서 최장기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상 조합원들은 고공농성 중인 다른 두 곳(세종호텔지부-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과 달리 도르래에 여성용품이 담겨 올린다.

이은희 조합원은 농성 초반만 해도 피임약 복용으로 박정혜의 무월경을 유도했다고 말

했다. 이 조합원도 정 조합원처럼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기 때문”이었다. 기간이 길어지자 몸에 너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조합원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박 수석이 이제 약은 안 먹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조합원은 미혼인 박정혜가 나중에 아이를 가지려 할 때 지금 농성이 좋지 않은 영향으로 이어질까 걱정이라고 했다.

고공농성 500일을 앞두고 이 조합원과 정 조합원은 “죽을 만큼 힘들다”고 했다. 우선 기간이 길어져 힘들다. 결을 지키던 동지들이 생업을 이유로 떠나갈 땐 큰 슬픔에 잠겼다. 박정혜를 포함해 11명이 투쟁에 들어갔다. 지금은 7명이다. 지난해 가을 조합원 4명이 동시에 나갔다. 이 조합원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 했고, 정 조합원은 “남은 동지들이 나눠서 져야 하는 부담이 더 커졌다”고 했다. 두 사람 씁쓸하고도 슬픈 표정을 지었다.

조합원들은 그 뒤로도 크고 작은 부침을 견뎌야 했다. 이 조합원은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은 지나 보냈다”고 했지만, 정 조합원은 “아이 양육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점점 더 커진다”고 했다. 12세 자녀를 둔 정 조합원은 ‘엄마 언제 들어와’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족을 향한 미안함이 쌓인다.

이들은 이제 고된 고공과 지상의 일상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다.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믿는다. 대선을 앞둔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조합원은 “고공농성을 하는 와중에 대통령이 바뀔 줄은 몰랐는데, 이번이 동지를 고공에서 내릴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정치권을 포함해 온 사회에 상황을 알리고,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4년차 간호사 병원 나와 농성장 지킨 이유

정치권이 손 내밀길 바라는 건 세종호텔지부와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은 올해 2월

13일부터, 김형수 거통고조선하청지회장은 3월15일부터 고공농성 중이다.

김 지회장이 오른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철탑 아래 상주하는 박수정 조합원은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4년 차 간호사였다. 비상계엄과 탄핵국면에 광화문 광장에서 시간을 보내던 그는 거통고조선하청지회를 만난 뒤 생업을 멈췄다. 지회 가입도 두 달이 채 되지 않았다. 박 조합원은 “거통고 일은 광장에서야 알게 됐다”며 “늦게 알게 돼 미안했다. 알게 된 이상 남 일이라 생각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조합원은 지상에서 시민들의 응원과 조롱의 목소리를 모두 듣는다고 했다. 그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김 지회장이 저녁에 내려와서 아침에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 5명을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3년째 이어오고 있다. 지회는 노조법 2·3조의 허점 때문이라고 본다. 박 조합원이 투쟁에 합류하게 된 이유도 이 사안이 모두의 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손배폭탄’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을 끌어내야 한다고 본다. 박 조합원은 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당하게 파업을 했을 때 기업이 허무맹랑한 금액을 손배 청구하지 않게끔 법이 꼭 개정되면 좋겠다”며 “농성장까지 오지 않더라도 많은 분이 눈여겨 봐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짜 정치, 여기서 출발하자

고 지부장과 함께 복직을 요구하는 이창우 세종호텔 공대위 집행위원장도 마찬가지 심정을 밝혔다. 이달 23일이면 고 지부장이 고공에 오른 지 100일이다. 고 지부장과 투쟁의 시간을 함께 이어가는 이 위원장의 목소리는 밝았다. 이 위원장은 “사무장 동지는 무릎에 물이 차기도 하고 힘들지 않다고 할 순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을 내려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의 걱정은 정치권의 무관심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전에는 농성장을 찾아 오기도 했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고공농성을 이제 언급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는 우려가 커졌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은 이미 집권 여당인 것처럼 한다. 이전보다 더 보수화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며 “지치지 않고, 대선 기간에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공농성장 3곳의 목소리는 시민의 삶과 연결된 비정규직 문제, 고용 문제, 노조할 권리 문제”라며 “정치인들이 진짜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치민 세경일보 기자



노동특별권을 외쳤는가, 기본권을 외쳐왔다. 기본권을 요구하기 위해 고공에 올라야 하는 세상이 이어지고 있다. 2017년 서울 여의도 광고판 위 건설노동자 고공투쟁.

내 삶과 우리 일터, 대통령 당선 한 달 안에 바꿀 수 있다

당선된 대통령이 취임 3일 만에 비정규직을 만나러 왔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입니다.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겪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사장은 올해 안에 전부 정규직화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눈물이 났다. 차별받고 설움 받던 세월, 이제는 내 삶도 바뀔것구나 싶었다.

꿈속 얘기가 아니다.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건공향을 찾아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한 약속이다. 8년이 지나고 세상은 바뀌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더 커졌고 비정규직은 더 늘었다. 최저임금 산업 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면서 도둑질당한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었다.

“여름휴가 3일이 1년 휴가 전부입니다. 명절에 당직을 서고 법정공휴일에 출근해 일해도 일당을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휴일에도 일했는데 대표는 하루라도 휴가 내면 월급에서 까겠다고 합니다.” “사장 부부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3년 일했습니다. 연차가 없고, 한달에 한번은 쉬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3년 동안 휴가를 못 갔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육설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만두라고 일방통보하더군요.”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2025년 대한민국 일터의 일상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장 마음대로 해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연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는 15~25일의 유급연차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일터는 ‘법대로’가 아니라 반대로 작동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모든 법적 권리들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350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

이 온갖 욕설과 갑질을 당해 해고되어도 구제신청조차 못한다. 야근하고 휴일에 일해도 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연차휴가는 커녕 공휴일에도 쉬지 못한다. 86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서 모든 노동법에서 제외된다.

박근혜를 파면시킨 광장의 힘은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게 했지만 일터를 바꾸지 못했다. 민주당은 야당일 때만 노동자 편이었다. 문재인이 만든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우리 국민이 파면시켰다. 현재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국회까지 장악한 가장 강력한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소년공 출신 이재명은 내 삶을, 내 일터를 바꿀 수 있을까? 6월 3일 당선된 대통령은 그 누구든 한 달 안에 가장 차별받고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일터를 바꿀 수 있다. 최소한 직장갑질과 해고로부터 법적 보호를 요구할 수 있고, 공휴일은 유급휴가로 쉬고 원할 때 연차휴가를 쓸 수 있다. 당선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명령으로 시행령만 개정하면 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 제한 △유급공휴일 △연차휴가를 5인 미만 사업장과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대법원 판례에 다른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을 시행하면 알고고도 폐인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내 삶이 바뀌는 한 달은 가능하다. 대통령이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그조차 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라고. 비정규직 철폐하고 평등세상 쟁취하자고. 내 삶과 우리 일터는 우리가 싸워 바꿀것노라고.

김수익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공동조직원

“저 두 사람을 내려올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고압선 송전탑 위에 최병승, 천의봉 등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두 사람이 일주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법원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채용을 거부하는 사용자에 의해 저 위험한 곳으로 쫓겨난 것이다.

정의란 무엇인가? 지금 대한민국의 정의는 저 두 사람이 웃으면서 내려오는 것이 정의이다. 저 두 사람을 내려올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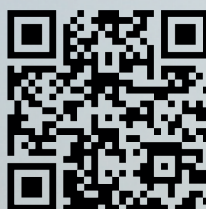
— 2012.10.25. <노회찬의 난중일기>

노동자들이 일터를 지키기 위해 위험에 내몰리지 않아도 되는 나라

노회찬의 꿈이 담긴 ‘노회찬의 집’ 소중한 벽돌 한 장, 힘을 더해주세요!

함께 쌓아주시는 벽돌 한 장 한 장이, 든든하고 튼튼한 주춧돌이 됩니다. 후원자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새긴 '기부자의 벽'이 만들어집니다. 창신동 골목 앞에서, 노회찬과 함께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온라인 후원



계좌이체

농협 301-0275-1424-61
(재)평등하고공정한나라노회찬재단

계좌입금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위해
성명, 휴대폰 번호를 010-8356-6411(문자전용)
으로 남겨주세요.

문의 노회찬재단 02-713-0831 | hcroh6411@naver.com

노회찬재단

말벌 나타나지 않았다면 대체 어쩔 뻔

고공농성 연대 ‘말벌동지’ 4명 인터뷰 ... “일단 한 번 나와보세요”

...
그때 말벌 한 마리가 실내로 날아들었다
...
뽕뽕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벌집을 에워싸며
처음으로 가까이 모여들었다
모두의 얼굴을 둘러보며 선생님은 빙그레 웃었다
말벌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
...

김소연, “흩어져 있던 사람들”, 『축진하는 밤』, 문학과지성사, 2023.

「흩어져 있던 사람들」은 김소연 시인이 2023년 펴낸 시집 『축진하는 밤』에 수록된 첫 번째 시다. ‘선생님’ 집 안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은 말벌을 만난 뒤 모인다. 말벌 한 마리가 실내로 날아드는 일을 계기로 비로소 함께한다. 말벌이 이뤄낸 연결과 연대를 보며 선생님은 묻는다. “말벌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

시 세상 밖에도 연대를 만드는 말벌이 있다. 고공농성장과 투쟁현장에 나타나 연대하는 시민 ‘말벌동지’다. 한 방송에서 말벌만 보면 달려드는 말벌아저씨가 알려진 뒤로 연대가 필요하면 어디든 찾는 이들을 ‘말벌시민, 말벌동지’로 부르게 됐다. 이들은 SNS로 투쟁현장 소식을 전하며 더 넓은 연대를 이루려 한다. 시

속 말벌이 그랬듯, 이들은 흩어진 투쟁현장과 시민들 사이 연대를 만들어낸다.

금목신문은 5월12일~13일 4명의 말벌동지와 대면·전화로 인터뷰했다. 이들은 한국유타칼하이테크·세종호텔·한화오션 고공농성장에 연대하며 “자신의 세계가 넓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자기 안팎의 세계를 바꿔내는 말벌동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을까.

자신의 세계가 넓어지는 경험

이들은 탄핵촉구 집회가 열린 광장을 연대의 시작점으로 꼽았다. 유타칼 농성장을 찾은 회사원 김민지씨(32)는 계엄 이후부터 줄곧 국회 앞·한강진역·남대령을 지켰다. 이전엔 집회에 나가본 경험이 많지는 않다. 이번엔 주변에서 집회 경험을 듣다 자연스레 광장에 나섰다. 본격적인 연대 시작은 희망텐트·희망뚜벅이였다. 친구가 제안해 유타칼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희망뚜벅이에 참가해 유타칼 해고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됐다. 관심은 다른 투쟁현장까지 번졌다. 세종호텔·한화오션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의 서울 해화동 성당 고공농성장도 찾았다.

김진아씨(35)는 인터뷰이 중 집회 참여 경험이 가장 많았지만 그 역시 농성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탄핵촉구 집회를 계기로 허지희 광례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사무장을 알게 돼 농성장을 찾았다. 고공농성을 시작한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을 보며 이들이 복직하는 날까지 연대를 결심했다. “처음 고공농성장을 보고 눈물이 계속 났어요. 지부장님은

정리해고랑 비정규직을 철폐하자는 과제를 안고 올라갔잖아요. 노동자들이 이렇게 힘들게, 생존을 걸어야만 하는지 마음이 뒤엉켰어요.” 진아씨는 이전에도 세월호·박근혜 퇴진 집회 등에 나갔지만 농성장을 가 볼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노조혐오 프레임에 갇혀 노조에 거리두기를 하다 연대와 광장을 경험하며 민주노조가 오히려 시민을 보호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농성에 연대하며 힘을 얻고, 투쟁을 알게 됐다. 삶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한화오션 투쟁은 최전선의 투쟁”

대학생 박수연씨(24)도 광장을 계기로 노조 주체 집회에 처음 갔다. 올해 초 ‘무지개조 선소’를 거쳐 한화오션 농성장을 자주 찾게 됐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지난 2월 배 ‘연대투쟁호’를 만드는 무지개조 선소 프로젝트를 연대시민과 함께 했다. 다자인을 전공한 수연씨는 배를 만드는 ‘잼투(재미있는 투쟁)’에 끌려 색칠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선박 건조에 참여했다. 그러다 3월에는 김형수 지회장이 고공농성을 시작하자 기자회견과 선전전에 나갔다. 조합원들과 연대를 늘려가며 5월 노동절 집회 때는 지회 깃발 밑에서 자연스레 동지들과 함께했다.

왜 한화오션일까. 20대 대학생과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거리는 얼핏 멀어 보인다. 그는 한화오션 문제가 “최전선의 투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 투쟁이고, 하청노동자·

비정규직 철폐 같은 의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회의 투쟁이 자신의 투쟁이라고도 말했다. 수연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노동관점에서 같은 의제에 투쟁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제가 흑여 정규직이 되더라도 하청노동자가, 비정규직이, 특수고용노동자가 안전하지 않은 사회라면 제게도 안전하지 않은 환경일 것”이라고 했다.

연대로 넓어진 세상

시민들은 연대 이후 변화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진아씨는 활동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됐다. 민지씨는 민주일반노조 누구나 지회에 가입해 조합원이 됐다. 업계엔 노조가 없지만 동료들과 함께 현장을 바꾸는 ‘나의 싸움’을 고민하게됐다. 수연씨는 투쟁으로 세상을 바꾼 노동자를 보며 어떤 방식으로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현장을 배우고 힘을 키워 노조나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자신을 상상하기도 한다. 대학생 이다연씨(26)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X(옛 트위터)에 들어가 유타칼 고공농성장이 위치한 경북 구미 4공단 날씨를 확인한다. 농성이 몇 일차인지도 세어본다. 농성자들이 X에 새로 올린 글도 본다. 서울에 거주하는 다연씨는 자신의 표현대로 “마음을 쓰며” 연대를 일상에 들여왔다.

유타칼이 가장 마음 쓰이는 이유는 농성장이 서울에 없어서다. 땅에서 답을 찾지 못한 해고자들은 자신의 처지를 널리 알리고 보기 위해 하늘에 오른다. “구미는 너무 조용하

거든요. 일본 본사도 농성을 신경 쓰지 않고, 집착하자면, 투쟁소식을 전할 유일한 방법이 고공농성이지 않았을까요.” 처음엔 연대가 필요하다고 해 농성장을 찾았지만 “어느새 이들의 문제가 언제든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연씨는 해고된 조합원과 자신을 포함한 ‘우리’의 고용승계를 믿는다. “니토덴코 사장을 만난다면 당신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챙겨해내는 것이라고, 꼭 이겨낼 거라고, 공장으로 돌아가고 말 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가 가장 바라는 것은 조합원들의 복직이다. 또 공장 같은 공간을 이어가는 것이다. 탄핵을 촉구하는 광장은 사라졌지만 옳은 요구들이 터져 나온 광장이 농성장과 사회에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소수자성을 전면에 드러내는) 남태령식 자기소개라고 하면서 ‘저는 쿼어인’으로 시작하는 발언이 중요했던 이유는 집회현장뿐 아니라 집회밖으로 문제인식과 연대를 확산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광장이 닫히기에는 광장 속 목소리가 너무 중요했다고 그는 말했다.

다연씨는 “연대하며 많이 환영받았다. 누구든 환영할 준비가 돼 있다”며 농성장에 대한 계속된 관심과 연대를 촉구했다. 그는 희망뚜벅이에 참여하며 걷는 내내 연대시민과 대화가 통하는 안도감을 누렸다. “비슷하게 운동하는 사람들, 계속 이어지고 싶어하는 고민들을 함께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그러니 어서 오시기만 하세요. 다른 건 필요 없으니 일단 한 번만 나와보세요.”

정소희 매일노동뉴스 기자



말벌이 나타났다. 눈물 흘리는 말벌이 나타났다. 고향 외지는 말벌이 나타났다. 스스로를 노동자라 말하고, ‘동지’를 부르는 말벌이 나타났다. 말벌이었다, 꿀벌이었다. 힘겹게 이어지는 고공농성 현장에서 ‘말벌동지’들의 등장은 응원과 연대의 힘을 보여준다. 한국유타칼 고공농성을 응원하며 구미에서 서울까지 걸었던 ‘희망뚜벅이’의 장면들.



정치권 방치가 고공농성 부른다

정부·국회·노조 머리 맞대야

2012년 대선, 문재인 후보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철탑에 올랐다. 박근혜 후보는 전태일 열사의 동상을 찾았다. 안철수 후보는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철탑농성장을 방문했다. 2025년 대선, 후보들은 어디에 있는가.

구미 한국유타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박정혜씨의 고공농성이 500일째를 맞는다. 서울 중구 세종호텔과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도 고공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동시다발적 고공농성은 보기 드문 일인데다 ‘역대 최장기’ 기록이 실시간 경신되는 상황인데도 사회적 관심은 예전만 못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14일 “고공농성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노동 약자들이 택하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비상계급 사태 이후 정치·사회적 이슈가 연이어 터지면서 노동 약자들의 투쟁은 뒷전으로 밀렸다”고 말했다.

과거 고공농성은 사회 전체에 파장을 일으켰다. 1990년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82m 높이 ‘골리앗 크레인’에 올랐을 때는 언론과 정치권이 현장에 몰렸다. 농성은 13일 만에 끝났다.

2011년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김진숙씨가 부산 영도 조선소 85호 크레인 위에서 벌인 309일간의 농성도 마찬가지였다. 연대를 위한 ‘희망버스’가 전국에서 출발했다. 외신까지 주목했다. 사측은 결국 해고자들을 전부 복직시켰다.

지금은 다르다. 박씨 농성은 장기화하나 정치권 개입도, 언론 관심도 뚜렷하지 않다. 기업과의 협상도 길어진다. 이 교수는 “국민들이 노동문제에 무뎌지면 약자의 권리 침해가 발생해도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며 “박씨 농성 장기화는 그 방증”

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대선 국면이 이어지면서 크레인 위의 외침은 더 외면받을 수 있다”며 “국회의원과 대선 주자들이 구조적으로 누적된 노동 문제에 책임감을 갖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금속노조 한국유타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올 3월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아직 고공농성을 멈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정책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유타칼하이테크지회는 국회 무관심이 이어지자 지난 8일 세종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공농성 사업장 조합원들은 법·제도의 허점이 만든 피해자다. 국회가 외국 투기 자본의 ‘먹튀 방지법’을 만들거나 정리해고제를 폐지하거나 노조법 2.3조를 개정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피해”라고 했다. 지회는 “현재 고공농성 사업장의 문제는 국회가 만든 문제다. 긴 시간 외면한 고공농성 사업장 문제를 국회는 이제 직면하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기성 노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상임이사는 “고공농성은 대개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벌인다”며 “도움을 요청할 곳조차 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기성 노조가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바깥 문제에도 관심을 두고 사회 연대를 강조한다면 개별 노조가 자기 이익만 좇는다는 비판을 넘어서 더 큰 사회적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승혁 서울신문 기자

이익은 회사, 손실은 국민이 떠안는 나라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가 살 수 있다고 했다. 사실인가. 그랬던가. 기업이 살아나도, 이윤이 회복돼도 노동자의 몫은 비참했다. 임금체불, 정리해고, 손해배상 청구는 오늘날 노동자의 목을 친다.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굴뚝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이 일해온 기업들은, 이익은 자기들이 챙기고 손실은 사회가 짊어지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물적 재산은 이전하면서 노동자의 고용승계는 거부하는 곳, 정규직 대신 일용직을 유도하며 ‘사내의 잠재된 손실’을 사회화하는 곳, 정리해고 단행 후 2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해고 노동자를 외면하는 곳. 모두 ‘굴뚝 노동자’들이 아직 내려오지 못하는 곳들이다.

‘먹튀’ 전형 니토덴코

액정표시장치(LCD) 핵심부품인 편광필름을 생산해 LG디스플레이에 납품해온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사업장(구미공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자 청산이 결정됐다. 지분 100%를 보유한, 즉 이 회사 모기업인 일본 니토덴코(Nitto Denko Co.)가 보기에 구미공장은 화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다. 청산을 하려면 남아 있는 재산을 정리해야 한다. 니토덴코는 구미공장(한국옵티칼)의 물적 재산을 평택공장으로 이전시켰다. 평택공장은 니토덴코의 또 다른 자회사 한국니도옵티칼 사업장이다. 한국옵티칼 입장에서 보면 물량이 형제 회사(관계사)로 이동된 거다. 그런데 인적 재산(노동자)은 ‘포기’했다. 한국옵티칼은 희망퇴직에 나섰고, 이에 응하지 않은 박정혜씨를 비롯한 노동자를 정리해고했다. 해고노동자들은 평택공장에서 일하기를 원했지만 회사는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다.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였다. 구미공장과 평택공장은 사실상 동일한 사업을 했다. 전공정 작업을 하느냐 차이만 있을 뿐이었다. 평택은 전공정과 후공정 작업을 모두 했고, 구미공장은 후공정만 했다. 모기업(니토덴코)은 2016년 평택공장 후공정 작업 물량을 구미로 이전해 통합하려고 시도했다. 평택의 후공정 작업 노동자를 구미로 내려보냈다. 작업 통합이 가능한 만큼 동일 사업을 했다는 의미다. 이때 노동조합이 생기니 통합을 취소했다. 현대차로 치면 울산공장과 아산공장, 전주

공장을 각각 다른 법인으로 두고 공장을 돌린 셈이다. 니토덴코가 법인을 쪼개 한국에 진출한 건 평택과 구미에서 각각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혜택을 받기 위해서였다. 한국옵티칼은 2003년 구미국가산업단지 외국인투자전용단지에 터를 잡았는데 50년간 땅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법인세 감면 혜택도 받았다. 2003년 11월부터 2022년 3월(감사보고서 회계연도 기준)까지 7조7102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198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이 기간 지방소득세를 비롯해 회사가 부담한 법인세비용은 410억원에 불과하다. 니토덴코가 한국옵티칼에 낸 자본금은 220억원, 한국옵티칼에서 챙긴 배당금은 1734억원이다. 1999년 평택에 세운 한국니도옵티칼의 자본금은 843억원이다. 이 돈으로 2024년 3월까지 5827억원의 순이익을 거뒀고 니토덴코는 배당금 4475억원을 가져갔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는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정규직 대신 일용직 유도하는 한화오션

상여금 복구를 위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하청노동자인 김형수 급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 하청지회장은, 원청(한화오션)이 짜놓은 구조적 문제와도 싸우고 있다. 정규직 대신 일용직을 유도하는 구조다. 조선소 사내하청은 ‘본공’이라 불리는 1차 협력사의 상용직(정규직) 노동자, ‘물량팀’으로 불리는 2차 이하 재하청 일용직 노동자로 이어지는 구조다. 급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의 하청노동자들이 지난해 말 기준 약 2만명으로 보고 있다. 이중 물량팀 규모는 30% 정도로 추산한다. 사측은 본공 임금을 줄이고 물량팀 임금은 늘려왔다. 특히 물량팀은 시간급이 아닌 도급단가로 일당이 주어져 당장 더 많은 돈을 받는 물량팀으로 옮기는 하청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용접 작업을 예로 들면 동일한 업무인데도 시급제 노동자가 1만3000원 정도를 받을 때

물량팀은 최대 3만원가량을 받기도 한다. 물론 물량팀은 포괄임금제가 적용돼 연간 임금총액으로 본공 임금과 큰 차이가 없거나 물량팀 임금이 조금 더 높다는 게 지회 설명이다. 하지만 안정된 일자리를 스스로 차고 불안정한 일자리로 옮기도록 구조는 짜였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2016년까지 상여금을 550% 받았다. 업계 불황이 닥친 이듬해부터 2022년까지 상여금은 제로였고, 2023년 50%로 겨우 회복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인 데다 업황도 회복했으니 상여금을 2016년 이전 규모는 아니더라도 2023년(50%)보단 높여달라고 노동자들은 요구했다. 하지만 하청사들은 원청에서 기성금을 충분히 받지 못해 노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김 지회장이 법적 사장이 아닌 원청을 대상으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배경이다.

흑자에도 노동자 외면 세중호텔

노동자들을 해고한 이후 2년 만에 흑자로 전환한 기업. 매해 영업이익이 두 배 이상 뛰고 있지만 해고노동자들의 부르짖음은 외면하고 있는 기업. ‘사계절 아름다운 남산과 화려한 다운타운의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회사 누리집) 세중호텔 얘기다. 코로나 팬데믹이 닥친 2020년 중국 관광객이 끊기자 세중호텔(법인명 세중투자개발)은 그해 5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듬해에도 48억원 적자를 냈고 세중호텔은 2021년 12월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중호텔지부장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이에 맞섰지만 대법원은 노동자들을 끝내 외면했다. 세중호텔은 2023년 21억원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엔 4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흑자 규모를 키웠다. 당기순이익은 2023년 12억원에서 2024년 333억원으로 268% 급증했다. 모두가 일상을 되찾고 회사도 경영이 회복됐지만 해고 노동자 김진수는 아직 땅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서대웅 이데일리 기자

IMF가 도입하고 대법원이 고삐 풀 정리해고제 27년

노동계 “노동자 쓰고 버리기 급급 … 제도 폐지해야”

경북 구미 공장 옥상에 오른 박정혜씨와 서울 명동 교통구조물에 오른 고진수씨가 회사 쪽과 고용 관계를 단절당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조항이다. 정리해고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부실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도입된 뒤 ‘기업이 살아야 비로소 노동자도 산다’는 경영 논리에 매몰된 대법원에 의해 고삐 풀린 땅이자가 됐다. 근로기준법에 정리해고 요건으로 규정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앞으로 예상되는 경영상의 어려움조차 포함된다며 포문을 연 건 2002년 7월 대법원 판결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지금은 우리은행이 된 한국상업은행과 한일은행 합병 때 정리해고 노동자가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선고했다. 한동안 잊히는 듯하던 이 논리는 2012년 2월 기타제 조 회사 콜트·콜텍의 정리해고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더 확장된 형태로 나타났다. 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이번엔 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전반적으로 흑자더라도 일부 사업부문 경영이 어려워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사업부문에서 정리해고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논리는 이듬해 6월 동서공업주식회사 정리해고자 14명 판결에서 경영자의 재량에 힘을 싣는 내용으로 더 확대됐다. 대법원은 “기업의 잉여인력 중 적정한 인원이 몇 명인지는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

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더구나 회사가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고용유지훈련, 휴무 실시, 임원 임금 삭감, 희망퇴직 말고도 무급휴직이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을 하지 않았다는 노동자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표현은 엄청난 사회적 파문을 낳으며 “해고는 살인이다”는 명제를 던진 2014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대법원 판결문에도 그대로 등장한다. 대법원은 당시 서울고법의 마은혁 판사가 정리해고 당시 회사가 미래의 이익은 축소하고 손실은 부풀려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당시 주심을 맡은 박보영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미래에 대한 추정은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예상 매출 수량 측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을 기초로 한 것이라면 그 추정이 다소 보수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합리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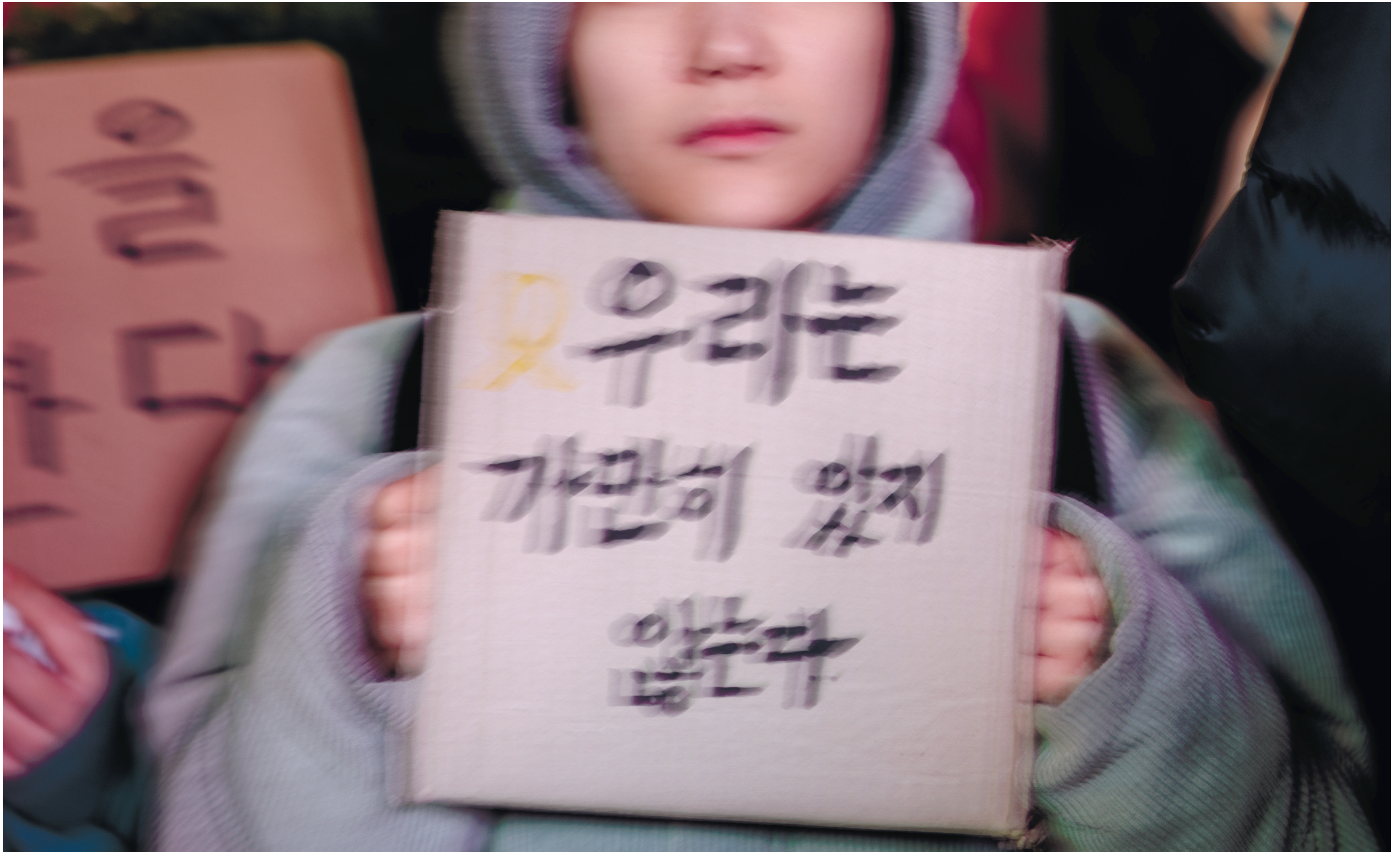
노동계는 법원에 의해 갈수록 요건이 완화되는 정리해고 제도에 다시 한번 고삐를 채워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변호사)은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자임하는 법원은 정리해고제도 도입 27년간 사용자가 노동자들을 쓰고 버리는 물건으로 취급할 때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급급했다”며 “새 정부는 남발되는 정리해고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제도 자체를 폐지함으로써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종휘 한겨레 기자



‘미래에 닥칠 수도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노동자의 목을 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판사의 말에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은 주저앉았다. 쓰다 버리는 헌신짝이길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2019년 본사 고공농성에 돌입했던 콜트·콜텍 노동자 김경봉.

윤석열 파면하고도 여전히 같은 세상이라면



올라간다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 든 촛불이었다. 세상을 바꾸고 싶어 든 응원봉이었다. 세상을 바꾸고 싶어 켜 주먹, 세상을 바꾸고 싶어 외친 함성이었다. 바뀐 세상을 만나려고 힘주어 찍은 한 표였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세상이 달라졌던가. 박근혜가 물러나고도 세상은 그대로였다. 차별도 그대로였다. 약자를 향한 혐오는 더욱 커졌다. 이번에도 그래야 하는가.

말라간다 사람들이

하늘에도 감옥이 있다. 저 하늘은 오르고 싶어 오르는 하늘이 아니다. 밀리고 밀려 설 자리를 잃은 이들, 놀리고 놀려 목소리를 잃은 이들이 죽을 각오로 오르는 한 뼉의 바다. 그 위에서 그들이 말라간다. 우리가 말라간다. 사람이 말라간다. 이러려고 든 촛불이 었나. 이러려고 든 응원봉이 었나. 박근혜를 끝내고도, 윤석열을 끌어내리고도, 세상의 교체가 아닌 집권당의 교체라면 우리는 거부한다. 악랄한 자본세상, 더러운 차별세상, 역겨운 혐오세상.

사진 / 윤성희 정택용 노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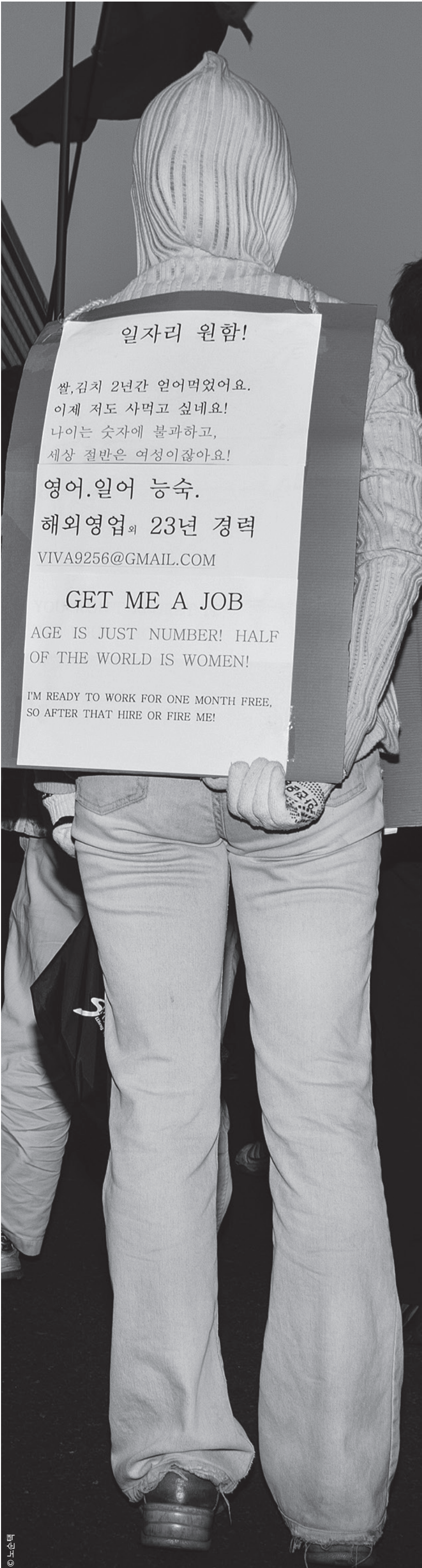


우리는 거부한다, 차별세상 혐오세상



일당 반토막, 성희롱 뒤 해고, 국가가 버린 ‘노동난민’

어느 한국어교원의 이야기 … 아파도 못 쉬고 잘려도 말 못하고



© 노순벽

노동자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비임금 노동자만 862만명이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174만명에 달한다.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쉴 틈 없이 일해도 생계를 지탱하기 빠듯하다. 일이 고돼도 쉴 수조차 없다. 연차도 병가도 없다.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노동법의 우산 아래 초단시간 노동자와 프리랜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자본은 노조 파괴를 넘어 고용형태를 형해화해 아예 노동자성을 말소하려고 한다”는 고용노동성 노동자 고진수의 경고는 아찔하다. 노동하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10주마다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에요. 제가 무엇인지, 어디 소속인지도 모르겠어요.”

30대 후반 여성 A씨는 대학교 부설 여학당에서 일하는 한국어교원이다. 3년째 같은 기관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는 10주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위태로운 시험대에 올라 있다. 수업이 있는 날에는 4시간 강의 진행을 포함해 최소 8시간 이상 일을 하고 주말에도 수업 준비에 몰두한다. 실수입 시간만을 기준 삼는 ‘강사료’를 제외한 수당은 전무하다. 수년이 지나야 겨우 몇 천 원 오르는 시급으로는 두 곳 이상 여학당을 오가며 쉴 틈 없이 일해도 생계를 지탱하기 빠듯하다. 일이 고돼도 제대로 쉴 수조차 없다. 연차도, 병가도 쓸 수 없다. 응급실에 실려 간 다음날에도 재계약 결정에 반영되는 강사 평가에 대한 걱정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수업에 나섰다.

A씨는 ‘위촉계약’을 맺은 ‘프리랜서’이자, ‘주당 12시간 이하의 강의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다.

한 실내 스포츠 체험 시설의 여성노동자 B씨는 어느 날 일을 하다 고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되려 자신을 자책하며 괴로워하던 B씨가 용기를 내어 법적 절차에 나서자, 사장은 B씨에게 전화로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며 해고를 통보했다. 부당해고를 다투고 싶었지만 길을 찾기 어려웠다. B씨가 일한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비임금 노동자 862만명, 초단시간 노동자 174만명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노동법의 우산 아래 A씨와 B씨 같은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도, 직장 내 괴롭힘을 겪어도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연차휴가도 유급공휴일도 야근수당도 보장받지 못한다.

다만 몇몇의 일일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직장갑질119가 추산한 자료를 보면, 이들 ‘노동법 밖 노동자’들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비임금 노동자는 2019년 669만명에서 2023년 862만명으로 200만명 가까이 늘어났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2017년 96만명에서 2024년 174만명으로 두 배 가깝게 증가했다. 여기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50만명 등을 포함하면 A씨, B씨와 비슷한 현실에 놓인 이들이 최소 1400만명에 이르는 수치가 나온다.

프리랜서, 정규직 대비 실적 2배, 실업급여 1/4, 연차휴가 1/5

노동법 우산 밖에 놓인 이들 노동자의 불안하고 고된 현실은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실시하는 조사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지난해 12월 조사를 보면,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들 중 최근 1년간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한 비율은 23.2%로 상용직(11.8%)의 두 배에 달했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직 경험도 24.6%로 전체 응답자의 평균(18.2%)을 웃돌았다.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은 비율은 프리랜서/특수고용(20%)이 상용직(79.7%)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직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30%)의 수급 경험이 가장 낮았다. 근무시간별로는 15시간 미만(43.5%)이 최하위였다.

같은 해 2월 조사에서는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 중 연차휴가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5.3%로 상용직(8.3%)의 다섯 배를 넘어섰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9.7%가, 15시간 미만은 54%가 연차휴가가 없다고 답했다.

아파도 제대로 쉴 수 없다. 최근 1년간 독감 등 유행성 질환에 걸린 경험이 있

는 노동자들에게 휴가 사용 여부를 물었을 때, 상용직의 56.4%가 휴가를 사용한 반면, 프리랜서·특수고용은 31.3%만 휴가를 사용했다고 답했다. 파견용역·사내하청을 제외한 고용형태 중 가장 낮은 비율이다. 5인 미만(50%)의 경우 전체 응답자 평균을 약간 밑돌았고, 15시간 미만의 경우도 42.4%에 그쳐 근무시간별 응답에서 가장 적은 비율을 보였다.

지난해 6월 조사에서 아플 때 유급병가를 사용한 경험 정도에 관한 질문에 상용직은 100점 만점에 62.8점을 기록한 반면, 프리랜서는 42.4점을 기록했다. 5인 미만은 40.7점으로 직장규모별 응답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15시간 미만은 47점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특고 10명 중 4명만 계약서·명세서

고용계약과 임금도 ‘깍깍’했다. 9월 조사를 보면,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작성·교부율도 상용직은 각각 81.2%, 91%에 달했지만, 프리랜서/특수고용은 42.9%, 44%로 그 절반에 불과했다. 5인 미만은 각각 43.1%와 44.3%로 직장 규모별 응답에서 최하위를 차지했다.

부당함을 다룬 권리조차 박탈당한 이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공공에 오른 노동자들도 고민이 깊었다.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이들 모두가 사회적으로 필요해 존재하는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평등한 사회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면서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할 권리를 위한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짚었다. 김 지회장은 더 근본적으로는 “노동법 우산 밖에 놓인 노동자”라는 프레임의 한계도 지적하면서 “우산을 키울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산의 (경계) 자체를 없애 모든 노동자의 평등한 권리를 실현하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은 “자본은 이제 노조를 파괴하는 단계를 넘어 ‘고용형태를 형해화’해 아예 노동자성을 말소하려고 한다”며 “민중노총을 포함한 조직노동이 경계를 넘어 모든 노동자를 위한 투쟁에 더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정혜 한국유통티값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은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대국이지만, 이렇게 많은 노동자가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다는 건 노동 후진국이라는 걸 방증한다”면서 “한국 사회에는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자본을 위한 법체계만 존재하는 것 같다”고 했다. 박 지회장은 “결국 우리 스스로 싸워야만 바뀌는 게 이 사회”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목소리를 낼 때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노조로 뭉친 한국어교원

“저도 분명 일을 하는 노동자인데,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노동법은 저와는 무관한 느낌이에요. 저도 어딘가에 소속감을 느끼면서 이 사회에 기여하는 노동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도 노동자가 되고 싶습니다. 교육 노동자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A씨는 언어로 타인을 돕고 관계 맺는 일이 좋아서 한국어교원을 선택했다. 불안하고 두려운 일상, 그는 자신의 노동을 지키려 다시 길을 찾고 있다. A씨와 동료들은 지난 해 겨울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를 결성하고 활동에 나섰다. 이제 이들 노동법 밖 노동자들이 전한 절실한 진동을 더 너른 파장으로 만들어 갈 길에 우리가 함께 나설 때다.

류민 참세상 기자

노동자인지 아닌지 사장이 증명하게

미국 AB5법, EU 플랫폼 노동조건 개선 지침 … 노무제공자 노동법 적용

근로기준법은 법이 정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법, 남녀고용평등법, 채용절차법도 적용 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은 일부 특례 적용 대상을 두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가 적용 대상자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노동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이다. 그렇다면 누가 근로자인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포괄적인 정의 규정에 관해 대법원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만들었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업무의 결정권자, 취업규칙 등의 적용,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지정권자, 작업도구의 소유, 제3자 고용 가능성, 이윤과 손실 위험의 부담,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실질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디지털 산업으로의 변화, 기술의 발전으로 고용 방식이 바뀌어 가고 있다. 사업주는 알고리즘과 매뉴얼로 지휘·감독을 대체하고, 근무시간·근무장소는 유연하게 하는 대신 원하는 노동력만 추출하는 방식으로 노무를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전통적인 임금노동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닌 그 중간지대의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가 대표적이고 프리랜서도 여기에 해당한다.

프랑스 대법원은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 우버 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였고, 영국 대법원은 서비스 제공 계약 형태를 맺고 일하는 형태인 킥 이코노미(Gig economy) 노동자를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판결했다.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노무제공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추정하되, 세 가지 요건(회사로부터 어떠한 통제나 지시가 없을 것, 하는 일이 회사의 통상적인 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 그와 유사한 성격의 독립된 사업을 통상적으로 수행할 것)을

모두 입증해야만 근로자가 아닌 독립계약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abc테스트).

이후 캘리포니아주는 abc테스트를 근로자 판단 기준으로 정한 AB5법을 제정하여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돼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이 법에 의해 마땅히 누려야 할 최저임금, 산재보상, 실업보험, 유급병가 등의 기본권과 법적 보호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4년 4월24일 플랫폼 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지침(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in platform work)을 가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플랫폼 노동자에게 고용관계를 추정하고 알고리즘 정보를 노동자 대표에게 제공하고 단체교섭을 촉진하도록 정하였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전통적인 노동자에서 벗어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핵심은 이러한 노동자들이 독립계약자로 오분류되었다는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하고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현재 플랫폼 노동자와 극히 일부의 직업군에 속한 노동자에게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에 근로자 추정 문장을 신설하는 법안,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노무제공자에게 특례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 각종 사회보험법에 노무제공자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안 등 다양한 형태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발의 다음 논의까지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다. 외국과 비교했을 때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에 관한 보호 및 논의 수준은 초보적인 수준이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우리도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그 방향은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함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임종책임 부여하고(임종책임의 전환), 자영업자로 오분류되지 않도록 근로자 판단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화시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윤지영 변호사, 직장갑질119 대표

“오요안나가 어떻게 노동자가 아닙니까?”

진화한 무법지대 프리랜서·플랫폼이란 이름의 ‘노예’

“공채로 뽑아 프리랜서 계약서 쓰고 부러먹으면서, 선·후배 사이를 만들어놓고, 그 위에 탐장과 국장을 놓고 칸펄을 하면서 노동자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노동자가 아닙니까? 사장 이 사장한테 명령하고 잘잘못을 따집니까?” MBC 기상캐스터로 일한 고 오요안나씨(28)의 어머니 장연미씨는 지난 19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듣고 목놓아 울었다.

지시받아도, 시급 받아도 ‘너는 프리랜서’

고 오씨는 지난해 9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숨졌다. 그는 2021년 MBC에 입사해 3년4개월 일했다. 언론사 ‘공개채용’은 합격자를 정규직으로, 전속으로 쓰겠다는 뜻이다. MBC는 오씨를 공채로 뽑아 놓고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보수는 월 130만~400만원으로 널뛰었는데 100만원 안팎의 상비는 매달 꼬박꼬박 나갔다. 주5~7일 방송시간 3시간 전 출근해 기상팀장과 파트장 지시에 따라 원고를 고치고 방송을 진행했다. 파트장 등 데스크가 빠진 기상팀 단체 특방도 업무 지시 통로였다. 일종의 ‘지휘·감독의 외주화’ 시도다. 회사가 오씨를 노동자로 대하면 서도 그 흔적을 최소화하려는 수법이다.

노동부는 이날 오씨 노동자성을 지운 방송

사 손을 들어줬다. 업무상 괴롭힘이 있었다면 서도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오씨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76조2)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무법천지 속 산재·직장내 괴롭힘 사망

오씨와 같은 ‘위장 프리랜서’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늘고 있다. 나이가 플랫폼을 이용한 지휘·감독과 재하도급까지, 사용자가 노동자를 ‘사장님’이라 부르며 통제하는 수단은 전방위로 진화하고 있다.

오씨는 생계에 보태려 헬스 트레이너로도 일했다. 시급 2만원을 받고 일했는데 이 계약도 프리랜서였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을 마치고 낮잠을 청했다가 오후 헬스장에 나가 밤 11시까지 일했다. 어머니 장씨는 “딸은 프리랜서라는 아름다운 이름의 노예였다”며 “두 배 일했으니 스물여덟이 아니라 예순만큼 살았다”는 위로를 듣고 다시 울었다. 요안나 또래 아이들의 삶이 힘들고 피폐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영상미디어 플랫폼도 무법지대다. 임동석(30)씨는 140만명이 구독한 ‘유튜버 사장’ 아래 계약서 없이 일하다 다쳤다. 그는 콘텐츠 기획부터 매니저, 유튜버 심부름까지 1인 다

역을 해냈다. 2023년 말 생방송 중 스키 시범을 보이다 척추뼈 두 곳이 부러졌다. “다치면 산재 해드린다”던 사장은 말을 바꿨다. “프리랜서라 안 줘도 된다.” 지난해 8월 노동청 진정 끝에 산재 인정을 받은 그는 “50만 구독 유튜버도 스테프가 최소 3명 필요하다. 나 같은 이들이 더 있다”고 했다.

노동자를 옥죄는 플랫폼의 착취 방식은 갈수록 정교해진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조합원 김주환씨(57) 경우다. 그는 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카카오톡 대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한다. 카카오톡대리성은 2019년 돈 내는 노동자에게 쿨을 먼저 배당하는 ‘프로서비스’를 시도했다가 대리운전노조 파업 끝에 거뒀다. 코로나19가 끝나자 카카오톡대리성은 새 정책을 내놔다. 앱은 손님들에게 요금 선택지를 주고 택하도록 한다. 기사들엔 색깔로 등급을 매긴다. 쿨에 많이 응한 ‘그린’ 기사에게는 쿨을 많이 보여주고 가장 적게 응한 ‘퍼플’ 기사에겐 쿨 수를 줄인다. 자유경쟁 시장이라면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 손해가 되는 저가 요금은 없어져야 한다.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낮은 요금을 택하거나, 등급을 포기한다.

김주환씨는 이를 “회사보다 더한 실시간 지휘·감독”이라고 했다. “직장인은 반기나 1년에 한 번 근무 평가를 받지만 우리 같은 플랫폼

노동자는 매일, 매초 받는다. 오늘 내가 일하느냐가 당장 내일 근무에 영향을 끼친다.” 노조가 문제 제기하지만, 대리운전 시장을 장악한 카카오는 버틴다. 대리운전노조엔 1만 명이 가입했고, 카카오톡대리성에 등록된 대리기사는 20만 명에 이른다.

단단해진 플랫폼 통제, ‘다단계 하청’도

플랫폼에선 사장이 ‘하청노동자’가 되는 중간착취 구조도 생겨났다. 이삿집센터를 30년 운영한 이태숙씨(62·가명)는 전화를 통한 고객 모집이 줄어가던 3년 전 A씨를 만났다. 처음엔 일감을 한 달에 두세 건 넘겨받다가 점차 늘어 스무 건, 서른 건이 됐다. 알고 보니 A씨는 이사·청소서비스 중개 플랫폼 ‘미소’에 이씨 이름으로 등록해 영업하고 있었다. 이씨 이사하가증 사본을 등록하고, 이씨에겐 설명 없이 중개비라며 이사비용에서 30만~50만 원을 떼고 줬다. 손님들에겐 ‘부모님 사업’이라 소개했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남은 돈은 떼인 수수료보다 적었다. 그렇게 2년 넘게 일한 이씨는 지난해 초 직접 미소 사용법을 익혀 등록했다. A씨는 다른 이의 허가증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씨 고민은 끝나지 않았다. 플랫폼이 가져

가는 중개 수수료 때문이다. 미소는 이씨가 손님이 올린 견적 희망 정보를 조회할 때마다 5000~8000원의 수수료를 떼간다. 손님이 연락을 안 받거나 견적을 취소해도 자동환불되지 않는다. 이전엔 견적 취소 사실을 입증하면 환불해줬지만 지난해 말부터 반액만 돌려준다. 이씨가 부당하다고 플랫폼 측에 항의하자 ‘유지 비용’이란 답이 돌아왔다. 이씨는 “A씨를 벗어나는 순간 일이 하나도 없더라. 좋은 리뷰를 새로 쌓느라 비용을 아주 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며 “손님들과 연락을 시도하면 수만 원이 빠져나간다”고 하탈해했다.

고 오씨의 유족과 임씨, 김씨는 사용자 책임을 처음부터 다시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김주환씨는 “기존 노동법 틀로는 플랫폼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없다. 우리의 노동으로 이윤을 가져가는 이가 사용자”라고 말했다. 김혜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노동자와 사업자의 경계를 흐리는 것이 플랫폼의 특징”이라며 “플랫폼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일방으로 권한을 행사하지만, 이 때문에 만들어지는 재하도급 구조와 노동권 침해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용자로 어떻게 책임을 물을지 제도 개선과 대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했다.

김예리 미디어오늘 기자



© 노동법

어지럽게 오르내린다. 떨어진다. 오늘날의 노동은 ‘한 마디’로 말하기 어렵다. 불안한 노동이다. 노동은 있지만, 노동자를 지우는 불안정 노동이 삶을 옥죄고 있다. 법이 있어도, 법 안에 노동자가 없다.

시키는 대로 10년 해도 “법상 근로자 아니래요”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 … 노동부 방침

지상파 A 정보프로그램의 외주제작사에서 일하는 B씨는 11년차 PD다. 그의 ‘8일 단위’ 업무일정을 보면 2일은 방송 촬영, 2일은 밤샘 편집, 4일은 마무리 작업으로 채워졌다. 그는 감독이 시킨대로 예고 영상, 자료영상, 코너영상까지 만들었다. B씨는 “방송 특성상 비 오는 날에도, 쉬는 날에도 촬영을 위해 대기했다”며 “업무를 할 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라면 감수해야 할 상황이라고 10년을 버텼다고 한다. 지방고용노동청은 그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자로 인정해달라”고 다시 진정을 낸 B씨는 ‘무늬만 프리랜서’의 현주소다. ‘무늬만 프리랜서’는 정당하게 근로자로서 누릴 법적 권리를 사업주가 박탈했다고 정부에 대책을 호소한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5월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엔딩크레딧과 3차 공동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B씨를 비롯해 7개 직업군에 속한 노동자 50여명이 진정서를 작성했다. 올 3월에 이어 벌써 세 번째로 프리랜서들이 지방청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B씨의 업무 양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징표가 너무 많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본다. 겉으로는 자영업자처럼 보여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최근 법원의 판단 흐름이다. 직장갑질119와 엔딩크레딧이 올 3월 만든 ‘프리랜서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10가지 질문’에 B씨 사례를 적용해봤다. 이 질문 중 5개 이상

해당하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큰데, B씨와 일치한 질문은 5개가 넘었다.

대법원은 2006년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무늬만 프리랜서’가 비로소 근로자란 이름을 되찾는 ‘길’을 연 판결로 평가받았다. 수많은 ‘무늬만 프리랜서’가 이 판결 영향권 밖에 있다. 올 3월 콜센터 교육생 중 처음으로 노동청으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C씨는 “대다수 콜센터 직원은 직장을 잃을 게 두려워 근로자성 찾기를 포기한다”며 “근로자처럼 일하면서 하루 3만원을 받고 3.3% 사업소득세까지 때 가는 상황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C씨의 진정은 25년 동안 유지됐던 고용부의 ‘행정해석’에 금을 냈다. ‘업무 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을 위한 교육’을 통한 수료 실적으로 채용이 결정되면 사용 종속관계가 없다’는 행정해석 탓에 그동안 수많은 교육생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C씨는 답답해했다.

하은성 셋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매년 무늬만 프리랜서로 오분류 된 노동자가 늘어나는데, 고용부는 위장 사건에 대한 통계도 제대로 수집하지 않고 있다”며 “식당 아르바이트생,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이주·난민 노동자도 사업자처럼 위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분류는 근로자인데 특수형태고용종사자(특고),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로 잘못 분류된 상황을 뜻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8년 연구용역을 해 분석한 결과 당시 특고 221만 명 중 74만 5000명이 임금근로자로 분류됐다. 74만 5000명 중 상당수가 ‘무늬만 프리랜서’란 게 당시 보고서의 결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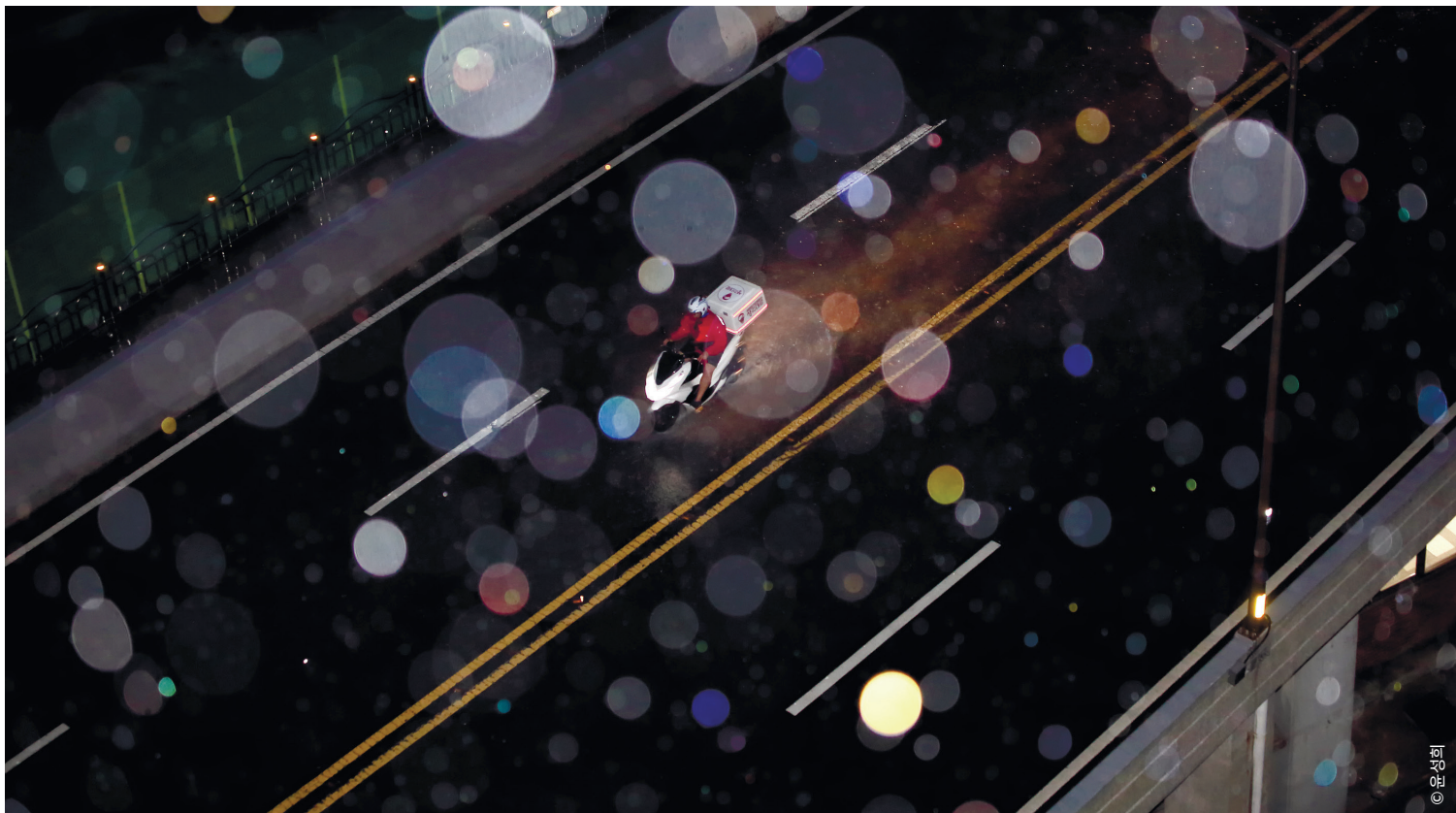
양종근 서울경제 기자



© 노동법

밤엔 쿠팡, 낮엔 알바

노동법 밖 N잡러 급증 ... 유급휴가·산안법 최우선 보장해야



“본업인 쿠팡 물류센터 심야조로 저녁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한 다음, 4시 50분에 집에 돌아와 2시간 쉼잠을 잔다. 7시쯤 일어나서 나갈 준비를 하고 8시부터 10시 30분까지 식자재 마트에서 아르바이트(알바)를 한다. 11시부터 인근 아파트 단지에 배송된 택배를 동호수에 맞춰서 옮기는 세 번째 일이 시작된다. 해가 중천에 뜬 낮 12시 반이나 1시쯤 일이 끝나면 집에 와 첫 끼를 먹고 두세 시간 눈을 붙인다. 일어나면 다시 물류센터 출근 준비를 할 시간이다.”

두 자녀를 둔 박민승씨(54·가명)가 설명한 하루 노동 일과다. 하루 수면시간은 4시간 30분. 물류센터와 마트 알바는 주 6일, 아파트 택배 알바는 주 5일 근무다. 단순 계산해도 그의 노동시간은 ‘주 73시간’이다. 업무상 질병 판정 시 야간노동(오후 10시~오전 6시)은 노동시간을 30% 가산하는 점을 고려하면, 몸에 가는 부담은 그 이상이다.

물가 폭등인데 시급 100원 올라 쓰리잡

민승씨는 ‘쓰리잡’을 한 지 벌써 1년이 다 돼간다고 했다. 그 직전 1년 반은 또 ‘투잡’ 생활을 했다. ‘힘들지 않냐’는 기자 질문에 그는 “초반엔 진짜 피곤했는데 지금은 몸이 익숙해져서 괜찮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월급 얘기를 꺼내자 그는 분한 목소리로 “임금이 진짜 너무너무 안 오른다. 뽕이고 라면이고 죄다 몇십 프로 오른 것 같은데, 이번 쿠팡 시급은 100원인가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노후 문제 때문에 쓰리잡을 안 할 수가 없다. 정년 연장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플랫폼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불안정한 ‘초단기 일자리’도 많아졌다. 지난해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일자리는 174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4년(약 86만 명)과 비교하면 88만 명 늘었다. 치솟는 고물가 때문에 본업에 더해 투잡, 쓰리잡을 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지난해 2분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N잡러’는 67만6000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15시간 미만 초단기 노동자 급증

부수입을 위해 N잡에 뛰어든 정규직 직장인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불경기와 고물가 탓에 단어 그대로 ‘몸을 갈아 넣으며’ 일하는 취약 노동자나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본업은 정육점 사장님인 김광연씨(55·가명)는 ‘코로나소상공인 대출’ 만기 시점이 다가오면서, 올해 초부터 틈틈이 배달 라이더를 뛰고 있다. 그는 “플랫폼 기업은 식당이랑 라이더 양쪽에서 다 떼 가지 않냐”면서 “보험료에 수수료 떼면 3000원 배송료 중에 받는 돈은 2500원 뿐”이라고 했다. 배달의민족은 최근 △구간(뚝배기배달(2200원~) △(1곳) 바로배달(3000원~)로 나뉘던 배달료 체계를 최근 ‘기본 2500원’으로 통폐합했다. 라이더들은 “운임 삭감”이라고 반발한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법의 보호망 밖’에 놓인 탓에 회사의 일방적 임금 삭감 결정에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권수용씨(55·가명)는 2년째 쓰리잡을 하고

있다. 30년 가까이 학습지 교사 일을 했지만,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본업에서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해 시작한 일이다. 새벽에는 택배 물류센터에서 집을 나르고, 오후부터 밤까지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만나며, 주말은 라이더를 뛰니 주 7일 근무다. ‘애가 셋에 막내가 고3’이라는 수용씨는 “기본 배달료는 엄청나게 깎였고, 학습지 교사는 특고라 4대보험 보장도 제대로 안 된다”며 최저임금, 적정임금이 보장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했다.

플랫폼 노동자도 건강권 절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적정 수수료 도입, 최저임금 적용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플랫폼·특고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유급휴가·상병휴가 제도를 통한 휴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산재·고용보험은 현재 일부 플랫폼·특고 업종에 적용되고 있지만, 건강보험·국민연금도 노동자가 전부 부담하는 만큼 ‘사업장 가입’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자발적 장시간 노동’에 매인 N잡러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 역시 국가와 제도의 역할이다.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장은 “야간 교대근무 시 건강검진 등 권리 보장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부터라도 우선으로 사업주 개념을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노무 제공을 받는 기업들이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최나실 한국일보 기자

쿠팡이 싸 올린 ‘주 7일 배송 지옥’

과로사 대책 무용지물 ... 주 5일 배송·적정임금 사회적 합의 지켜야

“2021년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합의 할 때는 하도 사람들이 잘못되고(사망) 하니까, 오후 9시 이후 심야배송을 금지했어요. 아예 배송 전산(앱)을 막았죠. 그런데 요즘에는 은근히 다 풀려나요. 또 사회적 합의에서 ‘주 5일제’ 시범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유명무실해져 주 7일 배송을 한다고 하죠. 고객 서비스 품질을 올린다는 명목하에 당일 배송을 강요하는 겁니다.”

21일 기준 28일째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 본사 앞 택배차량에서 숙식 중인 김찬희 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답답한 심경을 담아 말했다. 그는 한진의 일방적인 주 7일 배송 결정에 반발해 지난달 24일부터 농성 중이다. 쿠팡 로켓배송을 필두로 ‘빠른 배송’ 시장 수위가 커지자 CJ대한통운은 ‘주 7일 배송’을 올해 1월 본격 시행했다. 한진택배도 지난달 27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업계 전반에 ‘휴식 없는 365일 배송’이 기본값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빠른 배송, 당일 배송은 인력 총원, 조편성 같은 대책이 없다면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심야 노동’으로 이어지는 게 당연지사다. 그나마 CJ대한통운은 지난해 8월 ‘주 7일 배송’을 발표하며 ‘택배노동자 단계적 주 5일제 정착’ 목표도 함께 밝혔다. 노사가 휴일·타구역 배송 시 배송료 추가 지급, 휴일·타구역 배송 미참여를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등도 합의했다.

반면 한진은 3월 말까지만 해도 노조에 ‘주 7일 계획이 없다’고 했으나, 며칠 뒤 돌연 시행 사실이 알려졌다. 갑작스러운 시행 탓에 관련 대책은 전무한 데다, 현장에서는 휴일 배송 불참 시 배송료 삭감 등 불이익을 준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택배노조 결의대회에서는 “협치 배송을 하는 기사들은 주 7일 배송이 시작된 이래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택배노동자 사망 사고는 코로나 팬데믹 19 기간을 지나며 4배 이상 늘어났다(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 자료). 배송물량 폭증에 따라 노동강도가 세진 게 근본 원인이다. 노사정 합의로 ‘과로사 방지 대책’이 마련된 지 올해로 5년째지만, 그 안에 담긴 ‘주 60시간 노동,’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 제한’ 등의 원칙은 정부 감독 미비 속에 후퇴하고 있다. 당시 합의에 불참한 쿠팡의 배송노동자(퀵플러스) 평균 노동시간은 지난해 주 64.6시간으로 조사됐다.

노동계는 쿠팡도 사회적 합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택배업계 전반에 주 5일제와 적정임금 보장 제도 정착도 요구한다. 택배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정 택배회사와 교섭이 가능하도록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최나실 한국일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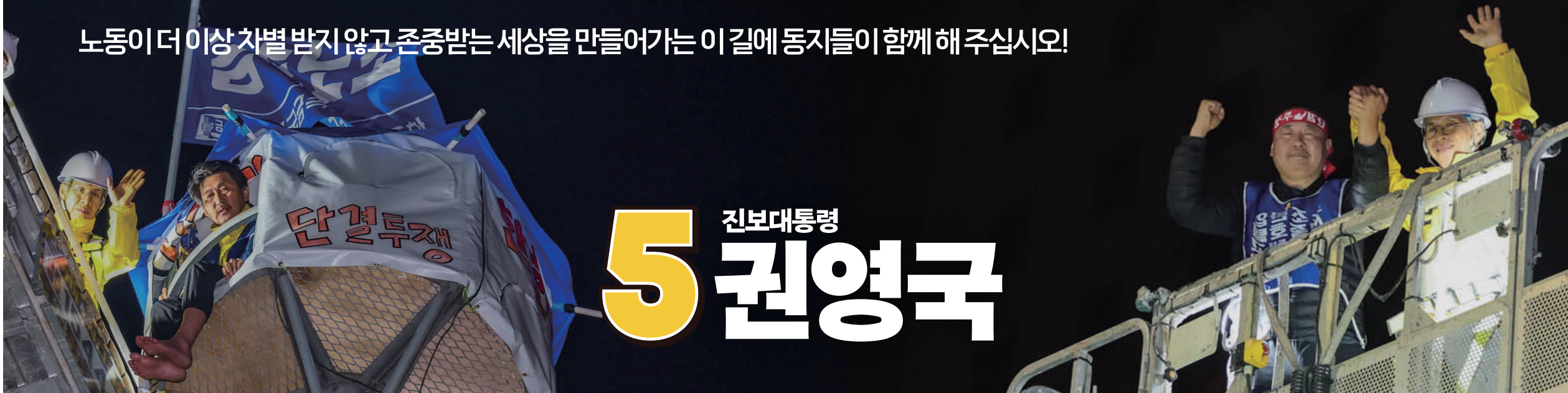
정년노동자 전태일이 스스로를 불사른 지 54년, 그의 외마디는 “근로기준법 준수하라!”였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의 바깥에 놓여있다.

I고공에 있는 동지들을 만납니다!



권영국 동지의 선거운동은 가장 높은 곳에서 김형수, 고진수 동지를 만나는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두 동지와 함께 박정혜 동지까지 하루 빨리 땅으로 내려와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스스로 가두지 않으면 목소리를 듣지 않는 불평등한 세상, 이제는 갈아엎을 권영국을 지지합니다.

노동이 더 이상 차별 받지 않고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길에 동지들이 함께 해주십시오!



진보대통령
5 권영국

하루 빨리 땅으로 내려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박규남, 박창규, 신언직, 오선근, 이강준, 이광호, 이덕우, 조문문, 조동진 동지가 함께 마음을 모아 이광고를 씁니다

대선판에 없는 ‘고공농성’

이재명·권영국, 노란봉투법 등 노동권 강화
김문수·이준석, 주 52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차등

6·3 유력 대선 후보 4명은 노동 공약을 통해 노동권 인식에 대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진보 측 후보들은 노동계 숙원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을 중심으로 노동계가 원하는 정책들을 약속했다. 반면 보수 측 후보들은 노동 정책을 외면하거나 친기업·시장 정책으로 ‘반노동전선’을 구축했다. 이번 대선을 두고 과거 대선 보다 노동이 소외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고공농성장 방문처럼 극단의 노사 갈등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들은 후보는 4명 중 1명뿐이다.

대선 후보 4명의 노동 공약을 노동 3권, 근로시간, 임금, 산업안전, 노동법 적용 범위 등 5가지 항목으로 나눠 살펴봤다. 5가지 항목에 모두 공약을 낸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유일하다. 이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4개, 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나란히 1개다.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은 하청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과도한 노조 손해배상 소송을 막는 노란봉투법과 근로시간 감축이다. 노란봉투법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라 분석이 많다. 노란봉투법이 시장 하층

에 있는 하청노동자의 이익과 권리를 스스로 강화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산업 등 단체교섭 활성화 공약이 실행되면 노동권 사각 지대가 더 줄 수 있다.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근로시간을 감축하겠다는 공약은 과로를 막고 휴식을 늘려 산업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권영국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노동 공약 방향이 대체로 일치한다. 이 후보와 차이점이 라면, 당장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공약들을 더 내놨다. 대표적인 공약은 작업중지권 확대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작업중지권을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 권리를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에 간헐했다. 사측이 작업중지를 할 만한 긴박한 위험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작업중지에 따른 손해 책임도 근로자에게 떠넘기기 때문이다. 권 후보의 강점은 3개 고공농성장을 모두 찾을 만큼 노동 현장 정서를 알고 사회연대정신을 직접 실천한다는 점이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주 52시간제 개선이 유일하다. 개선 방향은 경영계가 원하는 근로시간 유연화로 보인다. 김 후보는 주 52시간제

개선을 자신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세부 공약으로 담았다. 김 후보는 직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게 무색하다는 평가를 받는 게 불가피하다. 장관 시절 강조한 임금제불 근절과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를 공약에 담지 않았다.

이준석 후보는 다른 세 후보와 비교하면 가장 논쟁적인 공약을 내놨다. 해외에서 국가산업단지로 복귀한 기업의 경우 최대 10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작년 정부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수면 위로 올랐다. 하지만 헌법, 국제노동기구 협약,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 탓에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은 안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과거 대선을 보면 보수 정당이라도 표를 의식해 노동 공약을 내놨는데, 이번 대선은 이런 흔적이 안 보인다”며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은 지역 낙인효과를 우려해 경영계까지 반대했었다. 지자체에 결정 권한까지 주는 방향으로 더 나간 공약이 등장해 황당하다”고 말했다.

양종근 서울경제 기자



하늘강옥의 노동자들은 차별받는 약자, 고단한 청년, 위험한 민주주의의 대변인이다. 급하게 열린 대통령선거판에서 노동자가 보이지 않는다. 고공의 노동자들이 말한다. 대선후보 중 유일하게 고공농성 노동자와 손잡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노란봉투법과 먹튀방지법 있었다라면

고공농성 장기화·가족 고통 심화 … 국회 신속 처리해야

“가족들이 가장 고통스럽죠. 소장을 직접 손에 쥐는 사람은 가족이잖아요. 농성할 때는 배장으로 견뎌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죠”

스타캐미칼(파인텍)의 부당해고에 맞서 45m 굴뚝 위에서 408일을 버텼던 차광호씨. 당시 해고노동자들은 공장 내 농성장을 지켰다는 이유로 매일 1인당 5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사측에는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받았다.

“저희는 회사와 합의해 손해소도 취하했어요. 노동자가 유리한 조건에 섰을 때만 가능한 얘기죠”

목숨을 건 하늘 위 농성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을 이 땅은 늘 반기지않는다. 온갖 이유로 제기되는 손해배상 소송, 판결 전부터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가압류는 번번이 장기 농성을 벌인 노동자들의 목줄을 옥죄었다.

이를 해결하려 마련한 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이다.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노사 분쟁을 줄이고, 노동자를 향한 부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올해 들어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박해철, 박홍배 의원이 각자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우 의원 등도 야5당과의 공동발의를 예고했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 작업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의 노동3권까지 보장하길 기대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몽니로 불발됐을 뿐, 이미 지난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두 차례나 넘었던 게 노란봉투법이다. 12·3 내란이 탄핵의 방아쇠를 당겼지만, 애초 ‘윤석열 탄핵’ 구호가 울려 퍼졌던 계기도 노란봉투법 등을 윤 전 대통령이 연거푸 거부했기 때문이다. 2014년 쌍용차 해고자를 돕자며 제안돼 10년 넘는 세월을 기다려온 노란봉투법을 앞에 두고 국회가 더는

좌고우면할 이유는 없다.

김태선 의원은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제재와 손해배상 청구가 반복되는 현실을 더 그대로 둘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거부하고 외면한 법을 국회가 책임 있게 다시 추진해 노동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노동자들이 고공농성까지 몰리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먹튀방지법’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유타칼 사태처럼 외국인 투자 기업(외투 기업)들의 무책임한 철수·매각으로 대량 해고·노조 탄압이 일어나지 않게 막는 법안들이다.

‘먹튀방지법’ 관련 법안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은 폐업 전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외투 기업에 주어진 지원금을 환수할 절차를 규정한 내용을 담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관계 정부 부처도 기존 제도와 중복될 수 있고 외투 기업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이번 국회 논의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 손에손을잡고) 윤지선 활동가는 “외국인 투자를 유지하려 각종 혜택을 퍼주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정작 외투 기업이 국내에서의 기업 운영, 고용을 유지하려 최선을 다했는지 확인할 안정장치가 없다”며 “이를 정부가 꼼꼼하게 따져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는 지원을 환수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또 실제로 정부가 충분히 검증했는지 노동자가 재차 확인하도록 해야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 CBS 기자

이대로 살 수 없다!

**우리 삶을 바꾸는
2차 고공승리토크**

**세종호텔 고진수 고공농성 100일
정리하고 · 비정규직 철폐!
평등세상 쟁취!**

일시: 5월 23일(금) 19시 ~ 24일(토) 9시
장소: 세종호텔(서울 중구 퇴계로 145) 앞

정리하고 철폐를 요구하는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의 고공농성이 5월 23일(금)이면 100일입니다. 윤
석열 파면 넘어 해고없는 세상을 바라는 노동자시
민들의 마음을 모아, 5월 31일(토) 진행하고자 했
던 2차 공동행동을 5월 23일(금)에 진행합니다. 고
공에서 자상으로,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5월 23일
(금) 2차 고공승리토크에 함께 해주십시오.

**고공농성 즉각해결!
비정규직 철폐!
평등세상 쟁취!**

**비정규직 정리하고 차별없는 평등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해 온 비정규직과
연대 시민들은 요구합니다.**

· 문의 : 황철우 010-3481-2640 / 유홍희 010-7355-9826 / 이철우 010-2845-8588
· 후원 : 카카오톡 김주환 3333-04-1317762 · 주최 : 우리 삶을 바꾸는 노동자 공동행동

**V 고공농성 즉각해결
(유타칼/세종호텔/한화오션)**

유타칼 박정재 고공농성 500일
- Nitto는 고용승계 보장!
- 먹튀방지법 제정!

세종호텔 고진수 고공농성 98일
-정리해고법 폐지!
-해고자 복직!

한화오션 김형수 고공농성 68일

- 상용직 고용확대, 임금인상, 처우개선 약속 이행!
- 노조법 2조,3조 개정, 진짜사장 한화오션 교섭촉구!

V 내란세력 청산

V 비정규직 철폐

V 차별없고 안전한 평등세상 쟁취

**V 최저임금 대폭 인상 /
플랫폼 프리랜서 전면 적용**

배·반도체·밥을 짓는 사람들

“우리 노동자들은 일해서 거대한 기계부터 아이들의 장난감까지 모든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우리 자신의 인간적 존엄성을 위해 싸울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우리를 자기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만들려 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권력과 차츰차츰 싸울 기회를 얻을 정도의 자유를 원합니다. (중략)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폭도가 아닙니다.”

1906년도 러시아 소설 『어머니』(막심 고리키 지)의 주인공 파벨 블라소프가 재판정에서 스스로 최후변론하는 대사다.

배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거대한 기계, 즉 배를 만드는 사람이다. 박정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얇고도 섬세한 편광필름을 만드는 사람이다. 고진수 세종호텔지회장은 여행객들에게 밥을 먹여주는 사람이다. 이들의 노동으로, 우리의 노동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공장에 생수 보내기 운동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 나는 2022년 11월에 처음 가 본 것으로 기억한다. 남아 있던 조합원 17명이 공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날이었다. 구미공장은 산업단지 한가운데 있었다. 전기는 조합원들이 한전과 협상해서 다시 연결할 수 있었다. 다만 수도는 연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후에 옵티칼 공장에 생수 보내기 연대가 시작되었다. 연대해주시는 분 중에서 농업용수를 직접 싣고 정기적으로 공장에 와서 물탱크에 부어주고 가시는 고마운 동지도 계셨다.

2024년 1월8일 구미시에서 공장철거 승인을 했고, 박정혜와 소현숙이 공장 옥상에 올라갔다. 당시 사진이 내 휴대폰에 남아 있다. “모두의 생존을 위한 깃발이 되어”라는 현수막이 건물에 세로로 드리워져 있고 두 사람은 그 절박한 현수막 위에 손가락 끝 한 마디 정도로 조그맣게 보인다.

2024년 2월16일, 구미시가 철거반을 몰고 공장에 찾아왔다. 전날 전국에서 찾아온 연대동지들이 공장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날 조합원들이 공장 입구에 망루를 설치하고 올라가 차례로 앉아서 쇠사슬로 몸을 감쌌다.

2월16일에 철거반이 처음 온 것은 아니었다. 공장폐쇄 결정 이후로 옵티칼 사장은 일본 본사의 하수인이자 ‘청산인’이 되었다. 사장이 철거반을 끌고 매일같이 몰려와서 농성하는 조합원들과 싸움을 벌였다. 쪼잔하게 공장 울

타리를 하나씩 망가뜨리기도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철거반은 몰려났고 우리는 공장을 지켜냈다. 그러나 나는 너무 무서웠다. 망루가 너무 아슬아슬해 보였고 그 위에 쇠사슬로 몸을 묶고 앉아 있는 동지들이 눈물 나게 안타까웠다. 그래서 나는 망루 바로 아래에 섰다. 혹시나 상황이 나빠져서 망루가 만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동지들 아래에 깔릴 생각이었다. 그때 내 앞에 김형수 지회장이 있었다. 김형수는 나를 기억 못 하지만 나는 기억한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파업했을 때 연대하러 갔었다.

망루에 올라 쇠사슬을 묶고 강제 철거에 맞서던 날

고공농성 이후 날씨는 우리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 천막을 치자마자 눈비와 바람이 몰아쳤다. 여름이 오자마자 옥상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 박정혜, 소현숙 두 동지는 체감온도 40도가 넘는 공장 옥상 위에서 미적지근한 생수통을 안고 길고 괴로운 날들을 버텼다.

2024년 11월22일 김진숙·박문진 지도위원이 부산 호포역에서 출발해 11월30일에 옵티칼 공장에 도착했다. 고공농성 320일째였다. 며칠 후 12월3일,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다. 민주노총 경북본부 간부들은 가장 먼저 구미옵티칼 공장으로 달려갔다.

이후 내란수괴가 파면될 때까지 몇 달 동안 나는 불안에 시달렸다. 박정혜·소현숙 동지가 경북지역 활동가들에게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는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보호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내란 세력이 알게 될까 봐 무서웠다. 한밤중에 내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후로 나는 혹시나 밤중에 군인들이 공장에 나타나는 건 아닐지 문득문득 소름이 끼치곤 했다.

2025년 1월10일, 전국 각지에서 1인용 텐트와 침낭을 들고 구미옵티칼 공장에 찾아와 1박 2일 ‘희망텐트’ 행사를 했다. 2월7일, 김진숙·박문진 동지가 구미에서 서울 국회까지 걷는 ‘희망투박이’를 시작했다.

반 나는 2월7일 출발 첫날 옵티칼에서 함께 출발했다. 이날도 눈보라가 몰아쳤다. 걷는 거리는 한 달 일정 중에서 가장 짧은 12킬로미터였는데 정말 고역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눈이 점점 더 많이 내렸다. 공원에서 휴식하며 점심을 먹었는데 김밥과 주먹밥이 반쯤 얼었다. 그래도 구미역에서 우리는 웃으면서 ‘투쟁’을 외치고 첫날 행

진을 마쳤다.

일주일 뒤인 2월13일, 고진수 세종호텔지회장이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3월1일, 희망투박이 행진단이 서울에 진입했다. 국회 앞에서 짧게 기자회견을 하고 명동으로 향했다. 옵티칼 조합원들이 “고진수 동지 우리 왔어요” 하고 인사하며 눈물을 흘렸다. 광화문 광장 마무리 집회에서 김진숙 지도위원이 무대에 올라 “소현숙, 박정혜가 아직 고공에 있고, 세종호텔 고진수도 고공에 있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모두 울었다.

3월15일,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 김형수 지회장이 30미터 철탑 위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4월27일, 소현숙 동지는 건강이 심하게 악화되어 476일만에 땅으로 내려와야 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니도옵티칼은 팽배 공장에서 87명을 신규 채용했다. 구미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조합원 7명은 고용승계와 먹튀 외국투자자본 규제를 외치며 투쟁 중이다. 박정혜 동지는 아직도 옥상 위에 있다. 고진수 동지도, 김형수 동지도.

희망텐트와 희망투박이

고진수 동지는 2017년 4월14일 6개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과 광화문 광장 건너편 건물 옥상 광고판 위에 올라갔다. 이들은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동약법 철폐! 노동법 전면 재개정! 노동3권 완전 정취!”라고 쓴 노란 현수막을 늘어뜨렸다. 그 옆에 검은 바탕에 노란 글씨로 “세월호 진실규명”이라는, 작지만 눈에 확 띄는 현수막도 있었다.

나는 그때 세월호 농성장 서명지기였고, 비정규직 대학 강사였다. 고공농성도 무서운데 고공에서 단식농성을 하려고 나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노동자들이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는 게 너무 서러워서 울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세월호 진실규명” 현수막을 걸어 준 게 너무 고마워서 울었다. 그때는 고진수 동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고진수를 부당해고한 세종호텔은 학교법인 대양학원, 세종대학교를 소유한 그 법인에서 수익사업으로 운영한다. 나는 세종국민학교를 졸업했다. 세종대와 같은 법인이고, 그때는 초등학교-중학교-대학교가 같은 부지 안에 함께 있었다. 80년대에 거리에 나온 다른 대학생들이 “독재 타도”를 외칠 때 세종대 학생들은 “족벌재단 물러가라”를 외쳤다. 이 구호를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 나는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실까지 몰려오면 최후가스 냄새도 기억하고 있다. 도저히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창문을 전부 닫고 학년 전체가 지하실로 피난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캠퍼스

안으로 경찰이 진입한 것이다. 학교가 학생들을 보호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재단 이사장의 아들이 이제 세종호텔 운영의 전권을 쥐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노동자를 어떻게 대했을지는 뻔하다.

고진수 동지가 다시 한번 고공에 오르게 되었다. 고공농성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노동자의 마지막 선택이다.

세종호텔 세종대학 세종국민학교

김형수 지회장은 SNS에 매일 고공농성 일지를 쓴다. “나의 조선소 이야기”에는 먼 외국에 가서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함께 배를 만든 이야기도 상세하게 적고 있어 무척 재미있다. 빨리 이겨서 내려와 책으로 내면 좋겠다.

김형수 지회장이 고공에 오르게 된 이유로 여러 언론이 ‘상여금 인상’을 언급했는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상여금의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조선업은 전체 노동자 중 하청노동자 비율이 60%가 넘는다. 게다가 하청노동자가 기계 설치, 판금, 용접 등의 핵심 사업을 맡고 있다. 김형수도 용접 노동자다. 그런데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0~70퍼센트 수준이다. 그것도 월청이 기성금을 줄이고 있어서 하청업체가 도산하고 하청노동자는 임금을 못 받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나도 평생 비정규직이었다. 그리고 나도 고등교육의 핵심 업무를 맡았다. 전공 수업과 어학 수업, 신입생 대상 기초 수업부터 대학원까지 모든 수준의 수업을 두루 진행했다. 수업에 관련된 학과 회의에 참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행정업무도 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진로상담, 유학상담, 추천서 써 주는 일도 했다. 퇴직금 소송을 시작하니 여기서 기 법원 판결문에서 “강사는 교수와 달리 학생 진로상담과 학과 행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 교수만큼 일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비정규직 강사는 정규직 교수와 똑같은 일을 한다. 정규직 교수보다 더 많은 일을 떠맡는다.

그러면서 대학 강사가 일 년에 버는 돈은 정규직 교수 연봉의 10~50퍼센트 정도 된다. 연세대 기준으로 내 강사 임금은 교수 임금의 10~20퍼센트 수준이었다. 시간당 받는 강의료는 12년 동안 3천원 인상되었다. 그리고 2019년에 강사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나는 3월에 개강하면 고용되어 6월에 종강하면 해고되고, 9월에 개강하면 다시 고용되어 12월에 종강하면 해고되기를 반복했다. 1년에 5개월인 방학 중에는 월급 받을 길이 없었다. 방학이 끝나가는 2월과 8월을 강사들은 ‘보릿

밥

고개’라고 쓴웃음을 담아 말했다. 물론 대학강사는 조선택정노동자처럼 위험한 일을 하지 않는다. 대학강사의 가장 큰 산업재해라고 해 봤자 두통이나 오심건 정도다. 배를 만드는 하청노동자는 언제나 죽음의 위협을 마주한다. 김형수 동지는 SNS에 배 아래쪽에서 불이 나서 그대로 갇혀 죽음을 맞이한 용접노동자 화재 상황을 다른 노동자들에게 알리고 대피시키는 업무를 맡아 배 안쪽까지 들어가서 150여 명을 대피시키고 자신은 대피하지 못해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이야기를 썼다.

배에 갇혀 죽은 용접공 이야기

한화오션 본사 앞에 농성장을 차린 뒤에 연대하는 동지들이 ‘무지개 조선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배 모형을 만들었다. 하청노동자는 배가 완성되어도 진수식에 부르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연대하는 동지들은 함께 배를 만들어 진수식을 했다.

연대 동지 한 명이 ‘무지개 조선소’ 스티커를 만들어 배부했다. 나도 이 스티커를 얻어서 박정혜를 위한 ‘투쟁인형’을 만들 때 사용했다. 고공농성 500일을 앞둔 박정혜 동지가 외롭지 않도록 인형동지 500개를 모으고 있다. 나는 해양 페플라스틱을 재활용한 범고래 인형에 대구귀어문화축제에서 얻은 “연대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라고 적힌 트랜스젠더 색깔 삼색 띠를 두르고 무지개조선소 스티커로 장식한 “단결투쟁” “고용승계” 피켓을 엮었다. 범고래는 상어도 잡아먹을 정도로 싸움을 잘 한다고 한다. 최근 유럽에서 범고래가 억만장자들의 요트를 공격해서 뒤집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서 유명해졌다. 자본가와 싸워 뒤집어 버리는 범고래 최고다.

우리는 거대한 기계부터 장난감까지 우리의 노동으로 모든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도구가 아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의 생존권이 존중받고,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노동으로 최소한의 존엄한 삶을 유지할 권리를 원한다. 이 당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박정혜 고진수 김형수 동지가 고공에 올라 외치고 있다.

세상은 들어라. 우리는 싸운다. 그리고 연대하여 이길 것이다.

고공의 동지들이 승리할 것을 믿으며, 하루 빨리 내려오기를 희망한다.

나는 언제나 연대하며 더 이상 아무도 고공에 올라갈 필요가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 것이다. 투쟁.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옥상과 철탑 위에서 투쟁하고 있는 한국옵티칼, 세종호텔 한화오션 동지 여러분!

동지들의 절박한 외침은 보편적 노동권을 향한 희망의 목소리입니다. 차가운 바람과 뜨거운 햇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동지들의 투쟁이 노동평등사회를 앞당길 것이라 믿습니다. 끝까지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낮은 곳을 향한 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후원회원으로 함께 해요!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비정규 노동 문제를 개선하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 권익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4-312169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아래QR코드인식하여 회원가입 뉴스구독

후원회원 가입신청 뉴스레터 구독신청

불안정 청년 광장의 청년



자난 12월3일, 한국사회는 예고 없는 계엄 선포로 충격에 휩싸였다. 이후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광장에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고, 가지각색의 응원봉을 든 많은 청년들이 참여했다. 이 모습 뒤에는 어떤 현실이 자리하고 있을까? 청년세대를 단일한 집단으로 묶을 수 없음에도, 이들의 삶과 정치의식을 이해하려는 실증적 연구는 부족하다. 오늘날 청년세대의 삶의 조건은 무엇이며, 그것이 그들의 인식과 정치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024년 8월 기준 20대 임금근로자의 43.1%가 비정규직으로, 관련 조사 이래 최고치다. '쉬웠음' 청년도 2025년 2월 기준 50만 4천여 명에 달한다. 청년들이 겪는 노동불안정성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과거에는 특정 직장에서 오랜 기간 일하며 형성된 동료의식과 직업 정체성이 안정감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제 청년들은 액화되는 노동의 모습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이승윤 (2024, 문학동네)에서 자신을 정의해야 하는 실존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청년들의 계층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2005년에는 33.5%가 자신을 하층이라고 인식했으나, 2022년에는 약 38%로 증가했다. 더 주목할 점은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다. 계층 상승이 어렵다고 보는 비율은 2005년 41.7%에서 2022년 55.7%로 크게 늘었다. 청년세대의 절반 이상이 개인의 노력으로는 계층 상승이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광장 이후,' 신진욱, 이재정, 양승훈, 이승윤. (2025년 5월 26일 출간예정, 문학동네)

이러한 청년 불평등과 사회구조에 대한 불신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 청년층의 고용불안정성이 심화되었다. 특히 남유럽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급증했고, 많은 청년들이 단기 계약직과 무급 인턴십을 전전하는 '영구적 수습생'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의 정치적 대응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제도권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주의로, 투표율 하락과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졌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형태의 집단 행동과 사회운동이다.

스페인의 '인디그나도스' 운동은 주목할 만한 사례다. 2011년, 마드리드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우리는 상품이 아니다,' '진짜 민주주의를 원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기성 정치권의 외면을 비판했다. 이 운동은 수평적 의사결정과 직접 민주주의를 실험하며 '포데모스'라는 정당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년 불안정성이 항상 진보적 정치 성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극우정당을 지지하기도 했다. 이들은 불안정 고용을 이민자와 EU 탓으로 돌리며 민족주의적 해결책에 기울었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불안정 노동을 경험하는 청년들은 크게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 첫째,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다. 둘째, 기존 체제에 대한 급진적 도전이다. 셋째, 단순한 해답을 제시하는 포퓰리즘적 해결책에 대한 지지다.

한국의 청년들은 어느 방향으로 향할까? 대선 투표율을 보면,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청년층 투표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았다. 20대의 투표율은 69% 내외로, 80% 이상을 웃도는 50대와 60대 이상에 비해 훨씬 낮았다. 하지만, 동시에 최근의 광장 참여와 관련 조사결과를 보면, 노동과 사회 불평등 이슈에 대한 이들의 관심도 높다.

해결책은 두 방향에서 모색해야 한다. 먼저,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 표준적 고용관계를 벗어난 노동형태를 포괄하고,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실질적 재분배효과가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청년들의 다층적인 목소리가 정치 과정을 통해 제대로 대변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구축되어야 한다. 청년층 당사자의 참여를 제도화하며, 다양한 정치적 실험과 참여 구조를 확장해야 한다.

청년들이 경험하는 불안정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현상이다. 그러므로 해결책 역시 개인의 노력이나 사회적 연대와 제도적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 유럽과 미국의 경험이 보여주듯, 청년 불안정성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정치적 활력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광장에 모인 청년들은 희망의 신호다. 그러나 이 희망이 지속가능한 변화로 이어지려면 불안정성의 구조적 원인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불평등한 청년과 광장의 청년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과제다.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하늘의 절규 땅 위의 책임

왜 위로 올라가는가. 어느 철학자는 고고하게 말한적 있다. 가장 높은 산을 오르 자는 모든 비극을 비웃는다 고. 조잡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통찰하고 초월하겠다는 것인데, 산을 실제로 고통스럽게 올라본 사람은 이런 말을 차마 하지 못한다. 매마른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한걸음씩 위로 오를 때마다 자신에게 걸린 세상의 그림자를 같이 끌고 올라야 하기 때문이다. 올라가야만, 그 그림자가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일하는 사람들이 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가. 올라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일하는 사람이 겪는 속 터지고 억울한 일은 그림자 속의 그림자다. 보려 하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 사람들이 올라다보는 곳에 프레카리를 내걸어야, 그곳의 일이 이른 새벽의 빛처럼 조금씩 드러난다. 왜 올라가는가. 올라가지 않으면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일터, 그곳의 비명과 울음은 좀체 들리지 않는다. 야생의 동물처럼 울부짖어도 이웃집 텔레비전 소리만큼 들리지 않는다. 올라가서 외쳐야, 그제서야 아련한 소리로 들린다.

세상의 하늘은 오늘도 맑았지만, 그 하늘 아래 누군가는 30미터 철탑 위에서, 누군가는 불탄공장 옥상에서, 또 누군가는 명동역 지하차도 철제 구조물 위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땅 위에서 외면당한 이들이 하늘 위로 올라간 건, 단지 더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다. 단지 "살고싶다"는 가장 인간적인 절규를 전하기 위해서다.

박정혜, 고진수, 김형수. 이 세 이름은 더 이상 특정사업장의 개인이 아니다. 그들은 법의 빈틈을 꿰뚫고 살아남은 기업 논리 앞에서, 제도라는 이름으로 방치된 수많은 일하는 사람의 얼굴이다. 불이 난 공장에서 보험금만 챙기고 사라진 외국기업, 정리해고의 명분 사



라졌는데도 침묵하는 경영진, 그리고 하청노동자의 입을 틀어막고 손해배상으로 짓누르는 대기업. 이들이 남긴 공통의 흔적은 '책임 없음'이다.

그러나 이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 세 사람은 말한다. 이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만든 문제라고. 고용승계를 막을 수 없고, 정리해고를 되돌릴 수 없으며, 파업을 하면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 당하는 이 제도는 누가 만든 것인가. 바로 우리의 대표들이 만든 법의 구조이고, 그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은 떨어지지 않도록 할만큼 위태로운 철탑 위로 몰려가고 있다.

500일, 98일, 68일(5월 21일 기준). 숫자는 차갑지만 그 속에 추위와 더위, 고독과 분노, 그리고 절박한 희망이 커져가 쌓여 있다. 누구도 쉽게 오르지 못할 그곳에 올라서야만 들리는 이 목소리를, 우리는 얼마나 오래 외면할 것인가.

어느 시인은 말했다. 산은 오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기 위해 있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다만, 그 산을 내려오게 하는 것은 이미 좁고 더운 곳에 오른 그들이 아니라, 땅 위에 머물러있는 자들의 몫이다. 하늘 위로 떠밀려 올라간 노동자들의 절규가 더 이상 공공에 머무르지 않도록 이제는 땅 위의 우리가 책임져야 할 시간이다.

내란이 시민의 권리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행위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일터에서 내란의 일상을 겪는 노동자들이 많다. 그들이 더 이상 위험하고 높은 곳에 오르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내란 종식의 진정한 시작이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있는 IL0 본부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사회의 선연한 중심은 박정혜, 고진수, 김형수가 오른 고공의 삶이다.

이상현 IL0 고용정책국장. *'왜 좋은 일터라는 늘 부족했나', 저자

무지개 조선소에서 희망텐트까지

12·3 내란은 한국 (상업)영화가 즐겨 찾는 소재인 비릿한 권력과 암투를 다룬 영화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렇지만 나에게 그날부터 파면 이후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윤석열과 정치인들이 아닌, 낮에는 광장을, 밤에는 농성장을 지킨 말벌 동지들이다. 그리고 이 영화의 색깔은 암청색이 아닌 무지개빛이다.

내가 경험한 영화적인 순간들을 나누고 싶다. 세종호텔 앞, 연대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브라스밴드의 캄캄밴드의 연대 공연에서 만난 할아버지. 그는 동료에서 노점상을 하며 틈틈이 시를 쓰는데, 그날은 3·8 여성의 날에 쓴 시를 낭독했다. 여성 해방 없이 노동 해방 없다! 그리고 공연 내내 나에게 곡명을 물어보고 신문에 빼곡히 적었다. '핑..크..팬..더..오..에..스..티.' 집에 가서 공부하려고 적는다고 했다. 공연이 끝나자 고진수 동지가 확성기에 대고 소감을 말했다. "지금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타이타닉... 침몰하는 배 위의 연주자들처럼, 윤석열이 석방한 이태...". 그럼 우리가 침몰 중이란 말인가! 섬뜩한 농담에 우리는 파하학 웃음을 터뜨렸고, 시인은 그 순간에도 부지런히 펜을 썼다.

투쟁사업장 오픈 마이크가 있었던 어느 날의 광화문은 블랙 코미디 같았다. 가장자리에 흩어져 있다가 광장이 열리자 서로를 발견하고 연루된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다. 해고 노동자, 성소수자, 비국민으로서 자기 삶을 이야기했다. 후드티, 노조 조끼, 무지개 깃발이나 담요를 두른 그들 곁을 지나 농성 천막들을 따라 걷는데 어느 구간부터 길 위의 모든 사람이 슈트를 입고 있었다. 떨끔한 차림으로 약속하고 답소하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 전혀 다른 시공간이 붙어 있었다. 여기서라도 들리기 위해 외치는 사람들의 울통불통한 세계와



여기서조차 가장 잘 보이는 자리를 차지하고도 듣지 않는 사람들의 매끄러운 세계가.

구미의 율터갈 희망버스에는 계획되지 않은 클라이맥스가 있었다. "고공에도 봄이 오길"이라며 다 같이 불탄 공장의 외벽에 꽃 스티커를 붙였다. 팔을 아무리 길게 뻗고 점프를 해도 꽃이 9m 높이의 옥상에 닿을 순 없었다. 그러다 누군가, 깃대 끝에 스티커를 붙여 높이 들었다. 사람들이 아래에서 그의 몸을 받치고, 팔을, 깃대를 최대한 높이 올렸다. 조조하게 깃대 끝을 보다가, 와! 하는 함성이 터졌다. 우리가 보낸 봄이 도착한 것이다.

광장에는 '스타워즈 저항군'처럼 덕질로 탄생한 깃발들이 많다. 영화나 만화, 소설을 보고 '세상은 어때야 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나와 현실의 세계를 다시 만드는 것이다. 창작자들은 그 믿음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 2012년에는 한진중공업으로 향한 '영화인 희망버스'가 있었다고 들었다. 이 산업의 주변부에 있는 내 좁은 경험으로는, 2025년의 영화인들이 우리 이름을 건 희망버스를 탄 광경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2012년의 나는 희망버스에 없었다. 그 마음이 바뀌어 이번에 그 초대에 응한 것은, 말벌 동지들에게 배운 게 있기 때문이다. "내가 뭐라고"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한화빌딩 앞의 무지개 조선소, 세종호텔, 율터갈 희망투박이에서 만난 그들은 타인의 투쟁을 기꺼이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로 만들었다. 그들이 만든 영화 같은 순간들이 나를 희망버스로 불렀다. 이번에는 뒤늦게 이곳에 도착한 내가 주제넘음을 무릅쓰고 동료들을 부르려 한다. 여기서 우리 영화가 상상하지 못한 장면들을 보자고. 일터의 동료들, 광장의 동지가 됩시다!

최하나 영화감독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아근 말고 퇴근, 복종 말고 존중, 뒷담 말고 공감, 감질 말고 권리

일터의 민주주의를 비추는 응원봉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와 함께 업계를 바꿉시다



온라인노조 가입



온라인노조는 '참고 견디는 일터'가 아니라 '바뀌 나갈 수 있는 일터'를 상상하도록 돕습니다. 조합원이 되면, 네이버 카페(cafe.naver.com/119union)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노동상담 · 교육 · 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직장생활 애환을 나누고, 노동인권 의식을 키우며, 회사와 업계의 부당한 대우를 알립니다.

온라인노조는 개별 회사를 넘어 업종(직종)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업계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자단체 및 정부와 교섭합니다. 현재 **한국어교원지부, 사회복지지부**가 있으며, 동일 업종 종사자들이 많아지면 새로운 업종(직종)지부를 만듭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사회적 의제를 만들고 **업계와 사회를 바꿔봅시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온라인노조 기획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이 공공을 거들떠보지 않는 시대, 진주 의료원을 폐업해 노동자를 해고한 홍준표 총리실이 뉴스가 되는 나라라니, 김소연은 부끄럽고 답답하다. “20년이 되도록 고공에 올라가 하는 이 참담한 현실이 이제는 바뀌어야 하는데, 결국 밥과 정치를 바꾸야 우리 삶이 바뀌는 건전한 생각이 드는 모습입니다.”

박정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온라인노동자지원센터 기획팀장